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CINNA

# Do not be a friend with the world

만약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것을 잃어버린 것 입니다.





Dear Lord 주님,

From January 2022, 1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①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③ 통독본문3년 1독을을 위한오늘 통독 범위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화요일·Tue 11 1 2022 JANUARY

#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배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번제를 드린 노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악을 노이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게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 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 한 아들 '항'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1 세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20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sup>21</sup>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sup>22</sup>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 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3 등록·창세기 9장

<sup>23</sup>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 용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 더라

<sup>24</sup>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을 악고

<sup>25</sup>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 의 종이 되기를 워하노라하고

<sup>26</sup>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 안은 셈의 종이 되고

<sup>27</sup>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였더라

〈내지샘플〉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Reading Insight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brothers.

月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 Meditation •

Reading Plan • Genesis 9

<sup>20</sup>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

<sup>21</sup>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22}\,\mathrm{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sup>24</sup>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rm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27}$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와 이에 함 께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3-4절)

What was the food given by God and the accompanying warning? (9:3-4)

경고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 해보십시오. (5-6절)

Please meditate deeply on the meanings contained in the warning. (9:5-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택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⑤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②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③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61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목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aper for Outches & Pastors 영커리자한(연합리교회, 금완째AK) 기쁨의 교회, 중춘색(AL) 한안송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 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참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업리, 뜻, 계확'이자,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 다름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충 품겠지만 만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업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응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만음 위에서 싫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만응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_\_\_\_\_\_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 ⑦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성경일독/말씀묵상

#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 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 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4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 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 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 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 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2 January

01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2	3	창세기 Genesis 2장 □	4	창세기 Genesis 3장 □
9	10	창세기 Genesis 8장 □	11	창세기 Genesis 9장 □
16	17	창세기 Genesis 14장 □	18	창세기 Genesis 15장 □
23	24	창세기 Genesis 20장 □	25	창세기 Genesis 21장 □
30	31	창세기 Genesis 26장 □		

WE	DNESDAY	THU	RSDAY	F	RIDAY	SAT	URDAY
						1	창세기 Genesis 1장 □
5	창세기 Genesis 4장 □	6	창세기 Genesis 5장 □	7	창세기 Genesis 6장 □	8	창세기 Genesis 7장 □
12	창세기 Genesis 10장 □	13	창세기 Genesis 11장 □	14	창세기 Genesis 12장 □	15	창세기 Genesis 13장 □
19	창세기 Genesis 16장 □	20	창세기 Genesis 17장 □	21	창세기 Genesis 18장 □	22	창세기 Genesis 19장 □
26	창세기 Genesis 22장 □	27	창세기 Genesis 23장 □	28	청세기 Genesis 24장 □	29	창세기 Genesis 25장 □
				5 M T 5 6 7 12 13 14 19 20 21	December  W T F S 1 2 3 4 8 9 10 11 15 16 17 18 22 23 24 25 29 30 31	S M T 1 6 7 8	2 3 4 5 9 10 11 12 16 17 18 19

# 기쁨의 언덕으로

# 2022 H19 7 F7 (04) H14

새해를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 예배의 부름 가족중

\*예배를 시작하며 가족 중 한 명이 아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 8:1)

# 찬송 새79장(통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 2 숲 속이나 험한 산 골짝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 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 기도 다함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어렵게 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신 주님의 은 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우리 가정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맞이할 때에도 베푸신 은혜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성장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은 신앙의 본이 되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사랑과 존중, 우애가 넘치게 하시고 각 가족들의 학업과 직장과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과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 랑의 나눔과 믿음의 바른 행실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 소서. 또한 예배함을 즐거워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 기뻐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아주옵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창세기 1:26-31

\*가족 중 한 명이 성경을 읽거나 부모와 자녀가 교독합니다.

-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 게 하자 하시고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 조하시고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 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가족 중 연장자가 아래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둠 뿐이었던 세상은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차적으로 그 질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순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창조주이시며 빛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27)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창 2: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26) 놀라운 특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28).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당당히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분의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특별한 삶을 살아내기를 함께 다짐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회복할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된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에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 이심을 믿으며,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그 백성임을 기억합시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는 2022년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 찬송

# 551장(통 296) 오늘까지 복과 은혜

- 1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 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어 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 2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마음을 주소서
- 3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 새해 다짐과 서로를 위한 기도 다함께

- \*서로 새해 소망과 다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 \*서로 나눈 내용을 기록하여 일 년동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 아이들의 경우, 새해 다짐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주기도문 다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 창세기 1/2

# 창세기란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의 히브리어 첫 단어는 베레쉬트('태초에')이고, 유대인들은 성서의 첫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創世記, Genesis, 기원, 시작)라는 말은 희랍어 70인역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한글 성경의 창세기란 이름은 한문으로 옮긴 희랍어 번역본에서 시작되었고, 세상이 지어질 때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창세기는 본래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묶여 있었는데, 그 분량이 많아 유대인들이 다섯 두루마리로 나누면서 '오경(五經)'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히브리 이름은 '토라 - 율법서'입니다. '토라'의 정확한 의미는 '바른 가르침,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하니,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의 첫째 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바른 가르침과 삶의 도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창세기는 모세가 써서 전해주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가 포함된 오경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창세기 17장에나오는 할례의 규례를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고(요한복음 7:23), 창세기 50:10-11에 나오는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통해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성서학자들은 모세오경을 비교하면서, 글체나 단어, 시대 배경이 다른 여러 글이 모아져 지금의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세기역시 여러 시대에 걸쳐, 몇 가지 구전 자료와 다수의 편집인을 거쳤다고 추측됩니다. 창세기의 편집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창조 이야기를 기원전 14~10세기부터 글로 옮겼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공동체가 기원전 450~400년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직접 받은 모세나 후세의 기록자들모두 모세의 전승(권위)에 입각해서 창세기를 옮겨 적었기에, 여전히 창세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창세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구전으로 전해진 창조 이야기가 변색되거나 잘못 전해지면 안 된다는 현실적 인 이유가 창세기 기록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모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교리 대부분 이 창세기에 '씨앗'의 형태로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조와 함께 인류의 타락, 구원 또는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3:15). 여기에 창조의 교리, 죄의 전가, 칭의, 속죄, 타락, 진노, 은혜, 주권, 책임 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모두 창세기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창세기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중대한 질문들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 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 1:1)
- ②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창 15:6)
- ③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죽음 이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창 25:8) 창세기는 과학자, 역사가, 신학자, 주부, 농부, 여행자,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말해주며, 창세기는 바로 그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 창세기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까요?

창세기의 내용은 우주와 인류 역사의 시작(1-11장)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족장)들에 관한 역사(12-50장)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 주권의 진리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처음 명령, 첫 사람의 범죄와 에덴동산으로부터의 추방,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선택과 언약,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창세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창세기는 모든 시작에 대한 기록을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의 기원,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결혼의 기원, 죄의 기원, 출산의 기원, 제사의 기원, 살인의 기원, 죽음의 기원, 심판의 기원, 언약의 기원, 나라들의 기원,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전쟁의 기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주와 인류의 기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기록한 이유가 과학이나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신앙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된 우주와 인류의 기원,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믿음의 관점으로 본 창세기의 신앙고백

- 하나님은 나를 비롯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로로 다시 인간과 화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 오늘 창세기를 다시 읽어야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성경읽기를 시작하는 많은 이들이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고, 인류와 민족,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과정을 계시해 주기 때 문입니다.

창세기는 영적인 기록이면서, 또한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기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오늘의 우리를 초대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서도 때론 인간적인 실패와 좌절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고난과 불확실성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 창세기의 구조

역사 이전의 원시역사 1-11장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 12-50장	인물의 특징
① 창조(창 1-2장)	① 아브라함(창 12장-25:8)	믿음의 조상
② 인류의 타락(창 3-5장)	② 이삭(창 21장-35:29)	묵상하는 사람
③ 대홍수(창 6-9장)	③ 야곱(창 25:21-50:14)	갈급한 인생
④ 바벨탑과 분산(창 10-11장)	④ 요셉(창 30:22-50:26)	구원과 축복의 통로

## 참고도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마틴 로이드 존스 / 복있는사람), UBC 창세기(존 하틀리 / 성서유니온선교회) 구약개론(월터 브루그만 / 기독교문서선교회), 뉴인터프리터 스터디바이블(애빙돈) 공동번역 성서해설(일과 놀이)



2022 JANUARY

# 천지 창조

Creation of the Worl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빛-하늘-땅(풀/씨 맺는 채소)과 바다-낮과 밤(별들)-생물(하늘과 바다)-생물(가축과 짐승/사람)들이 순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 새64장(통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 묵상·창세기 1:1-5

통독·창세기 1장

-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3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 5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 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 Reading Insight ·····

God created the world with the Word. For six days, light-sky-land (plant/seed-bearing vegetable), sea-day and night (stars)-living creature (sky and sea)-living creature (cattle and animals/man) were created in sequence and they were good in the eyes of God.

√ Hymn 64 Joyful, Joyful, we Adore Thee

# Meditation • Genesis 1:1-5

Reading Plan · Genesis 1

- <sup>1</sup>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 <sup>2</sup>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over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
- <sup>3</sup>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 4 And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God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 <sup>5</sup>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복'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28절)

What are the obligations of those "blessed" by God who also discern the will of God? (1:28)

새해 인사를 나누며 어떤 '복'을 소 망하셨습니까?

What kind of "blessing" did you wish for as you exchanged new year greetings?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날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섭리, 뜻, 계획'이자,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겠지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섭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창세기 1장 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믿음 위에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믿음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02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무릎 꿇음'의 복

조숙희 권사(애틀랜타한인교회)

얼마 전에 먼 친척 되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0세도 안 된 나이에 말기 암 투병 중 운명했으니 분명 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 세상을 즐기던 분이었는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 회심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로 하여금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일은 참으로 아찔하고도 신비하기만 합니다. 그가 의식만 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그집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 차선에 서있을 때였습니다. 차가 뜸해져 좌회전을 시도했는데 별안간 차 한 대가 달려오는 게 아닙니까! 그 차는 바로 옆 쇼핑몰에서 우회전한 터라 미처 제 차를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급하게 브레이 크를 밟긴 했으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 차가 마치 무엇인가에 떠밀리듯 갓길 쪽으로 바짝 붙더니 엄청난 속도로 제 차를 피해 빠져나갔습니다. 일촉즉 발의 위기를 모면한 것이지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충돌하지 않은 게이상했어요. 처음엔 저의 부주의를 자책했으나... 점점 사탄의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려했으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약에 취한 상태였지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 간 회개와 감사, 영접 기도에 대해 전하자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임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표시였으니 '아멘'이라답한 것이지요. 놀랍게도 그는 사흘 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부족한 저를 보내셔서 기어코 그 영혼을 구워해 주셨으니...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선하심이 그를 무릎 꿇리시고 회개와 구원의 복을 주 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하시니라(창 1:27-28)"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barak 바라크)로 〈무릎 꿇다〉, 〈송축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 앞에 무릎 꿇리고 송축하게 하신 일이 복인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무릎꿇음'의 복이 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민 온후에도 변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형편없는 딸이었지요. 그런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무릎을 꿇어라"라 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로부터 3년 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회개한 후 성장하는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음'은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사 당신의 뜻을 깨닫고 따르게 하는 복을 주시려 함이었습니다. 그 후 성령님과 동행하며 간증서를 집필했고 주님이 열어주신 곳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무릎 꿇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무릎 꿇음'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척 분이나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는 저나주님 앞에선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무릎 꿇리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새해, '무릎 꿇음'의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Ваш·Mon

#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Man became a living be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으며, 아담으로 경작케 하셨습니다.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하와)를 만드셨습니다.

♬ 새135장(통133장) 어저깨나 오늘이나

# 묵상·**창세기 2:4-8, 15-17**

통독·창세기 2장

- 4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 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 5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 6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 7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 8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 17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Reading Insight ······

God rested on the seventh day. In the garden of Eden created by God, there were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God put Adam to work and take care of them. Later God took a rib from Adam and created a woman (Eve).

Hymn 135 Oh, How Sweet the Glorious Message

# Meditation • Genesis 2:4-8, 15-17

Reading Plan · Genesis 2

- 4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 5 When no bush of the field was yet in the land and no small plant of the field had yet sprung up--for the LORD God had not caused it to rain on the land, and there was no man to work the ground,
- 6 and a mist was going up from the land and was watering the whole face of the ground--
- <sup>7</sup> then the LORD God formed the man of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creature.
- 8 And the LORD God planted a garden in Eden, in the east, and there he put the man whom he had formed.
- 15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keep it.
- 16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You may surely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 17 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되었 나요? (7절)

Out of what was the man created and how was the man created? (2:7)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묵상해 보세요. (18절, 24 절, 참고 엡 5장)

Please meditate about why God created man and woman. (2:18, 24; also see Eph 5)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몽고메리주님의 교회, 유혁재(AL)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A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위의 말씀은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던 동산의 경작을 맡기시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는 적어도 두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1)'먹지 말라'는 명령과 2)'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결과도 예상되는 말씀입니다. 요약컨대,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따르지 않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자 명령이며, 이를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 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을 각자의 마음에서 내려놓은 모습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 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죄의 삯인 사망 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길 기도합 니다.

In Genesis 2:17, God commanded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This word sets the right understanding of "sin." As God entrusted Adam with the cultivation of the garden of Eden, He told Adam what he must not do and His word included two commands: 1) the command of "Do not eat" and 2) the command of "You will surely die." If we believe the world was created by God, the consequence of not following the command of God should also be expected. In summary, "sin" is not following God's command even though we heard the Word of God. It is our nature not to believe the Word of God.

Romans 1:28 states, "Furthermore, since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The Word of God is the covenant and command and to follow the Word by itself is faith. But for people who do not follow the Word of God, their nature is to abandon God from their heart and not to believe in God. For those who do not believe in the Word of God, the wages of their sins will be death. I pray that you will live today with and in the Word of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ক্রিএএ·Tue 04

# 선악과를 먹다

They ate frui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뱀의 간교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는 벌거벗었음을 깨달아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남자는 땅을 일구며 수고하여 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새254장(통186장) 내 주의 보혈은

# 묵상·창세기 3:4-11

통독·창세기 3장

- 4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5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6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 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 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 은지라
- 7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 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 8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 9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 가 어디 있느냐
- 10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 11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 Reading Insight ·····

Enticed by a crafty serpent, Adam and Eve ate frui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realizing their nakedness they hid in the trees. This event brought pains of childbearing for the woman and the ground was cursed so that through painful toil man could eat of it all the days of his life.

Hymn 254 I Hear Thy Welcome Voice

# Meditation • Genesis 3:4-11

Reading Plan · Genesis 3

- <sup>4</sup>But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You will not surely die.
- <sup>5</sup>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 6 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to be desired to make one wise, she took of its fruit and ate, and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 <sup>7</sup> Then the eyes of both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And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loincloths.
- <sup>8</sup> And they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walking in the garden in the cool of the day, and the man and his wife hid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among the trees of the garden.
- 9 But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and said to him, "Where are you?"
- 10 And he said, "I heard the sound of you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and I hid myself."
- 11 He said, "Who told you that you were naked? Have you eaten of the tree of which I commanded you not to ea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죄의 대가'로 사람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19절, 23절)

As we toil and labor, where is our life heading and what shape is our life in? (3:19, 23)

1번의 질문과 말씀을 묵상하시며, 인생의 모습을 묵상해 보세요. Please meditate on Question 1 and meditate about life.

###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욱(AR)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AR)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죄의 대가 Consequence of sin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4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 반대의 말을 합니다. 뱀의 유혹은 여자의 마음을 흔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놓여 지자 여자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는 생각을 품어 스스로 열매를 먹고 남자에게도 줍니다. 이 사건으로 여자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산고)'을 얻게 되었고, 남자는 평생 땅을 일구며 땀 흘려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삼 속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은 스스로가 죄를 지었음을 잊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만이 '산고'가 아니지요.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도 여자는 '엄마'로서 자녀들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고, 남자는 '가장'이란 이름으로 평생 땀을 흘리는 일과 그 역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삶이 쉽지 않고, 매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상을 살며 우리가 누구인지, 왜 땀을 흘리는지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기도합니다.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You will not surely die" (3:4). In Genesis 2:17 God said, "You will surely die," but the serpent said the exact opposite. The temptation of the serpent had shaken the woman's mind and dislodged the Word of God from her mind. As soon as the Word of God was dislodged from the woman's mind and she looked at the fruit of the tree, it appeared to be "edible," "watchable," and "capable of making them wise." So she ate the fruit and also gave it to the man. This event was the cause of "woman's pain for childbearing" and the toil of the ground and labor throughout life becoming man's livelihood.

The pains in life given to man and woman were the providence of God reminding man and woman of their sins and making them understand their sins. But "childbearing pain" is not limited to the time of delivery of a child. Even when a child grows up to be an adult, woman as a "mother" is never free from the worries about a child, and man is never free from the life—time role as the "head of family" and from the labor of life. That is why life is not easy and we face difficulty every day. I pray that we confess who we are and why we labor each and every da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PASSI-Med OS

2022 JANIJARY

# 가인이 벌을 받다

Cain is punish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과 아벨이 다투는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묵상·창세기 4:9-15

통독·창세기 4장

9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 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자니이까

10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 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 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 니이다

14주께서 오늘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 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 시니라

#### Reading Insight ·····

From Adam and Eve were born Cain and Abel. Cain was a farmer and Abel was a shepherd tending lambs. God accepted offerings from only Abel and during bickering between Cain and Abel, Cain killed Abel.

Fig. Hymn 218 Love your God with your heart and your true mind

#### Meditation • Genesis 4:9-15

Reading Plan · Genesis 4

- <sup>9</sup>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Abel your brother?" He said, "I do no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 <sup>10</sup> And the LORD said, "What have you done? The voice of your brother's blood is crying to me from the ground.
- 11 And now you are cursed from the ground, which has opened its mouth to receive your brother's blood from your hand.
- 12 When you work the ground, it shall no longer yield to you its strength. You shall be a fugitive and a wanderer on the earth."
- 13 Cain said to the LORD, "My punishment is greater than I can bear.
- 14 Behold, you have driven me today away from the ground, and from your face I shall be hidden. I shall be a fugitive and a wanderer on the earth, and whoever finds me will kill me."
- <sup>15</sup> Then the LORD said to him, "Not so! If anyone kills Cain, vengeance shall be taken on him sevenfold." And the LORD put a mark on Cain, lest any who found him should attack him.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아벨을 죽인 가인이 받은 벌은 무 엇인가요? (11-12절) What was Cain's punishment for killing Abel? (4:11-12)

하나님께서 왜 아벨에게 '표'를 주 셨나요? (15절) 그 이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Why did God give the "mark" on Cain? (4:15) Please meditate on the reason.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김찬홍(AZ)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조형(AZ)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원수를 사랑하라 Love thy enemy

창세기 2장에서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따르지 않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 이기도 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빗대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에 화가 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7절) 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는 살인을 합니다.

동시에, 죄를 짓고 도망하면서 자신도 살인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사 가인을 죽음에서 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짓기 전에 경고하셨고, 그가 죄를 짓자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눅 6:35), 이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루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In Genesis 2, we shared our thoughts about sins. "Sin" is to hear the Word of God but not to follow the Word, is also not to believe the Word of God, and in Romans is the attitude not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Cain became angry because God did not accept his offering with favor. But God said to him,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4:7). God gave Cain advance warning not to sin but Cain did not "listen to, or believe God, or retain His knowledge," and killed his brother.

As he was fleeing, Cain was also afraid of being killed. At this time God gave him a sign to avoid being killed. God gave Cain advance warning before he committed the crime and also provided a way out after he committed the crime. Through the very first act of murder in human history, God revealed His true character of dealing with a sinner. "Love your enemies" (Luke 6:35). God Himself fulfilled the Word. I pray that today will be a day of love for your neighbor in God as God loved His sinner.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목요일·Thu

# 아담의 계보

Lineage of Ada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아담의 계보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에녹, 가장 장수한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까지, 아담으로부터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새407장(통469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묵상·창세기 5:1-2, 28-32 통독·창세기 5장

1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 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 **컬으셨더라** 

28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 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0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 들을낳았으며

31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32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is the record of Adam's lineage. The names of Adam's descendants were recorded beginning with Adam, Enoch who walked with God and was taken away by God without dying on earth, the longest living Methuselah, and Noah.

#### Meditation • Genesis 5:1-2, 28-32

Reading Plan · Genesis 5

- <sup>1</sup> This is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Adam. When God created man, he made him in the likeness of God.
- <sup>2</sup>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and he blessed them and named them Man when they were created.
- 28 When Lamech had lived 182 years, he fathered a son
- **29** and called his name Noah, saying, "Out of the ground that the LORD has cursed this one shall bring us relief from our work and from the painful toil of our hands."
- **30** Lamech lived after he fathered Noah 595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 31 Thus all the days of Lamech were 777 years, and he died.
- 32 After Noah was 500 years old, Noah fathered Shem, Ham, and Japhet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5절) What standard did God use when He created man? (5:5)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과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까요? (창조 VS 탄생 VS 유전) What meanings do "a child is born" and "a child resembles parents" have? (Creation vs. birth vs. heredity)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위로(?)를 받다 Received Comfort (?)

모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29절).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 사람이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하는 이유는 바로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땀을 흘리며 지은 죄를 되뇌이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 인생을살게 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바라보며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 핏줄'이라는 마음과 아이의 닮은 모습에 부모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해해 보면, 자녀의 모습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부모가 발견함으로 기뻐하는 것아닐까요?

창세기 5장 1절,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음이 기록되어 있고, 3절에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이 아기를 보고, 자녀를 보고, 사람을 보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고 위로받으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Lamech, the son of Methuselah, had a son and named him Noah. When Noah was born, Lamech confessed, "He will comfort us in the labor and painful toil of our hands caused by the ground the LORD has cursed" (5:29). The reason why the ground was cursed and the reason why man had to sweat and toil the ground was because man disobeyed the command "not to eat." Therefore, man's life was destined to master the sin, regurgitate the consequences of sin, and toil the ground with sweat. At the same time God gives parents joy when they look at their children. Parents experience joy from the feeling of "our blood" and from some resemblance of their children to themselves. But with an understanding based on God's Word, doesn't the real joy come when parents discover the image of God in their own children?

In Genesis 5:1, it is written that man was created "in the likeness of God," and in Genesis 5:3, it is written that Adam had a son "in his own likeness, in his own image." When people draw joy looking at a baby, child, or other people, it means people are comforted when they discover the "image of God" in them. As we discover the image of God within ourselves, we draw the comfort that "God is with us." I pray that you will be comforted today as you discover the image of God in everybody you meet toda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v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금요일·Fri **07**

#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다

Men increased in number on ear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

세상에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죄악과 악함이 세상에 가득 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그의 가 족들에게 방주를 만들어 심판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 새278장(통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묵상·창세기 6:1-8

통독·창세기 6장

- <sup>1</sup>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 이 나니
- 2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 4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 5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 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6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7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 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 니라
- 8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 Reading Insight

Men increased in number on earth and because of that the earth was filled with wickedness and evil. God blessed Noah and shared His plan to save his family from judgment and directed him to build an ark.

☐ Hymn 278 Far From the Lord I wander'd Long

#### Meditation • Genesis 6:1-8

Reading Plan · Genesis 6

- <sup>1</sup> When ma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land and daughters were born to them,
- <sup>2</sup> the sons of God saw that the daughters of man were attractive. And they took as their wives any they chose.
- 3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abide in man forever, for he is flesh: his days shall be 120 years."
- 4 The Nephilim we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s of God came in to the daughters of man and they bore children to them. These were the mighty men who were of old, the men of renown.
- 5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 <sup>6</sup> And the LORD was sorry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to his heart.
- <sup>7</sup> So the LORD said, "I will blot out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land, man and animals and creeping things and birds of the heavens,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 8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육신이 된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 은 무엇이었나요? (2절)

What is the standard found in the deeds of "people of mortality?" (6:2)

'육신이 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5절, 참고 롬 8장)

Where is the life of "those of mortality" heading? (6:5; also see Rom 8)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CA)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Man is mortal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창 1:28).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로 세상을 가득 차게 하시려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2절).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3절). 성경적으로 '육신됨'은 생령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죄가 채워진 상태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각자의 것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롬 8:3),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원수가 되어"(롬 8: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8:5)라고기록된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세상이 '인간 중심'이기에 결국 '육신됨'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육신됨'을 찾아내시고 이를 벗어내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God created man and woman and gave them authority to rule over the world (Gen 1:28). This authority to rule the world was given to those who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would seek and find the will of God. Thus, God wanted to fill the world with those who would know the will of God. But as the number of people increased on earth, people began to do things their own ways (6:2).

Given the circumstance at that time, God took away His Spirit from man saying, "For man is mortal" (6:3). Biblically speaking, "man is mortal" could be interpreted as "man created as living creature now is filled with sins." The Word of God is dislodged from the mind and each man is faithful to his own mind. We must remember these scripture passages: "The mind of sinful man is death" (Rom 8:6); "The sinful mind is hostile to God" (Rom 8:7); "Cannot please God" (Rom 8:8).

Because our world is "man-centered" it is ultimately a "mortal world" and cannot please God. I pray that we find the "mortality" in our lives today and graduate from it.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E요일·Sat

# 노아의 홍수

The flo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물로 덮으셨습니다. 땅은 150일 동 안 물에 잠겼습니다.

♬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묵상·창세기 7:17-24

통독 · 창세기 7장

17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 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 으며

19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물이 백오십일을 땅에 넘쳤더라

#### Reading Insight

Noah built the ark obeying the command of God. God sent rain for 40 days and flooded the earth with water. The earth was under water for 150 days.

Hymn 438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 Meditation • Genesis 7:17-24

Reading Plan · Genesis 7

- 17 The flood continued forty days on the earth. The waters increased and bore up the ark, and it rose high above the earth.
- 18 The waters prevailed and increased greatly on the earth, and the ark floated on the face of the waters.
- 19 And the waters prevailed so mightily on the earth that all the high mountains under the whole heaven were covered.
- **20** The waters prevailed above the mountains, covering them fifteen cubits deep.
- 21 And all flesh died that moved on the earth, birds, livestock, beasts, all swarming creatures that swarm on the earth, and all mankind.
- 22 Everything on the dry land in whose nostrils was the breath of life died.
- 23 He blotted out every living thing that was on the face of the ground, man and animals and creeping things and birds of the heavens. They were blotted out from the earth. Only Noah was left, and those who were with him in the ark.
- 24 And the waters prevailed on the earth 150 day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절)

How did Noah react when he heard the Word of God? (7:5)

# 150일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What do you think Noah and his family were thinking during the 150 days?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남은 자들 Those left behind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후에 남겨진 자들을 모으시고 이들을 다시금 구원하신 것을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대표적으로 '남은 자들'에 속하는데,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은혜를 입은 자들'(창 6:8)이요, '여호와를 알게 된 자들'(출 7)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1)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2)남은 삶을 통해서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의 경우, 40일간 비가 오면서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을 목격했고, 사람들과 생명들이 물로써 죽음을 당하는 것도 보았으며,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떨림, 그리고 결단' 등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됩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로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When God passes judgment, an expression often used is "those left behind." The Bible keeps record of those who paid for their sins through judgment and those left behind who were gathered and saved again. Noah and his family fall into the group of "those left behind," who biblically speaking are the beneficiaries of grace" (Gen 6:8) and "those who came to know the Lord." (Exod 7)

There are a couple of common things among those people: 1) they witnessed the power of God and 2) they are called to testify what they witnessed through their lives. In the case of Noah and his family, they witnessed the earth being immersed under water while the rain continued for 40 days, they saw people and living creatures drown, and now they have to live knowing such a God is watching them. "The fear toward God, shivering, and resolve" is the calling for the people left behind. It is also our calling as well as we live in a time called "today" believing the words of the Bible. I pray that today will be a day of meditation to find how best we can live our life given by God through His grac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b>묵상</b>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09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 경 본 문 S 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참된 안식과 쉼은'

진유철목사(나성순복음교회)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만큼 죄가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방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방주에는 지구상의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들어가야 했기에 축구장 면적보다 넓고 최소 6층 빌딩보다도 높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규모였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에서 방주보다 턱 없이 작은 기도원본당의 건축을 위해서도 많은 절차를 거치고 엄청난 수고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도구도, 기술도 없었던 시대에 그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노아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에 8식구가 다 매달려 무려 백여 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악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방해와 핍박은 엄청났고, 오히려 그런 친지와 이웃들을 향해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노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이름과 같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온 세상을 뒤덮을 무시무시한 비와 홍수를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고 엄청난 크기의 배를 설계도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 짓는 것은 억지로 노력한 다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별빛이 더 아름답게 빛나듯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이름과 같은 참된 '안식과 쉼'을 이루어 위대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세상을 이기는 참 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월요일·Mon

# 홍수가 끝나다

The end of the flo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150여 일간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줄어갔습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 새521장(통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 묵상·창세기 8:13-19

통독·창세기 8장

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 이 걷혔더니

14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15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에서 나오고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 Reading Insight .....

The water that covered the earth for 150 days began to recede. The ark settled near Mount Ararat and God had again blessed Noah and his family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Noah built an altar and worshipped God.

#### Meditation • Genesis 8:13-19

Reading Plan · Genesis 8

- 13 In the six hundred and first year, in the first month,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e waters were dried from off the earth. And Noah removed the covering of the ark and looked, and behold, the face of the ground was dry.
- 14 In the second month, on the twenty-seventh day of the month, the earth had dried out.
- 15 Then God said to Noah,
- 16 "Go out from the ark, you and your wife, and your sons and your sons' wives with you.
- 17 Bring out with you every living thing that is with you of all flesh--birds and animals and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that they may swarm on the earth, and be fruitful and multiply on the earth."
- 18 So Noah went out, and his sons and his wife and his sons' wives with him.
- 19 Every beast, every creeping thing, and every bird, every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went out by families from the ark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7절)

What was the word of God to those who came out of the ark? (8:17)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지도 묵상해 보세요. (참고, 창 1:28) Please meditate on why such words were given by God. (Also see Gen 1:28)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드림교회, 정영희(CA)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오늘은 새날입니다 Today is a new day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다시금 땅을 밟고 농사를 짓고 땅의 신선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 기에, 모두에게 새날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세상은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노 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실 감 났을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 말씀의 의미가 위의 상황과 정확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육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니, 육신으로는 어제와 같은 날을 사는 것 같으나 믿음 안에서 새로운 날이 허락된 것이지요.

물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와 가족들은 자신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체험했을 테지요. 단순히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새날이 주어졌다'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새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십시오.

The flood ended and the time that Noah and his family had waited for finally came. Once again they walked on earth, planted crops, and were able to eat fresh vegetables. In other words, for everyone a new day had begun. Actually, however, the world was judged by water, and only Noah and his family survived. To Noah and his family, the existence of God who was watching them must have felt even more real.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2 Cor 5:17). The meaning of this scripture directly relates to the situation above. Believers in Jesus are not physically born again. Therefore, their life may look the same as yesterday, but in faith a new life is permitted.

As Noah and his family witnessed the judgment of people by water, they must have realized that they were not any different from those people but experienced the grace and mercy of God. It is not simply that "the flood is over and a new day" came, but more precisely "a new day when we must live with fear and trembling in front of God" came. Today is a new day for all of us. Let it be a day of meditation to think about what kind of minds we should have to live toda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화요일·Tue

#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 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 한 아들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 묵상·창세기 9:20-27

통독·창세기 9장

20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3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을알고

25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 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 안은셈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였더라

#### Reading Insight ······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r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brothers.

Fig.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 Meditation • Genesis 9:20-27

Reading Plan · Genesis 9

- 20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yard.
- 21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 22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 24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sup>27</sup>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와 이와 함께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3-4절)

What was the food given by God and the accompanying warning? (9:3-4)

경고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 해보십시오. (5-6절)

Please meditate deeply on the meanings contained in the warning. (9:5-6)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CA)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은혜를 잊다 Forgot God's grace

홍수도 끝났고 땅도 밟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언약대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 남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벌고 벗고 자다가 아들 함이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일로 아들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백 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습니다. 왕이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왕의 은혜를 입고 난 뒤, 백 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감옥에 보낸 사람과 같지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고,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참 6:8).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고 아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새 날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창 4:7)라는 경고를 잊은 가인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이와 같을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받은 은혜를 잊고 일상을 살아가며 심지어 이웃을 향해 저주의 생각, 말, 행동도 합니다. 오늘이 진정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하루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기도합니다.

The flood was over and they walked the earth. Because they received the covenant of God, all Noah had to do was to live with a new mindset and just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Then he drank a bit too much wine,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 told his brothers about it. Noah cursed his son Ham. This story is similar to one in Matthew 18 dealing with a friend of a servant who owed 100 denari to the servant. Upon his debt of 10,000 talents being cancelled by his master, this servant sent his friend to jail because his friend could not pay a debt of 100 denari. The world was judged with a flood of water and Noah was saved by the grace of God (Gen 6:8), but Noah cursed his son because his son brought some shame to his father Noah.

Noah did not act much differently from Cain who forgot the warning of Genesis 4:7,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even though Noah was facing a new day to live with the grace of God. As a matter of fact, our own daily life is like this. Although we could live each day as a new day with the grace of God, we often live each day forgetting His grace. We even think, speak, and act curses toward our neighbors. I pray that we will live today not forgetting that we are new creations to-day and truly different from yesterda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말씀 One Word	
다수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ին հենց · Wed 12

2022 JANUARY

# 노아의 자손들

The descendants of Noa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학자들의 관점: 1)생략된 이름도 있겠지만 족보에 기록된 숫자는 70으로 상징성이 있다. 2)메시야의 가계가 될 셈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묵상·창세기 10:6-14

통독·창세기 10장

6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 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9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 과 갈라와

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성읍이라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14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 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 Reading Insight

This is a record of the names of the descendants of Noah's sons, Shem, Ham, and Japheth. (Scholars' view: 1) Some names are omitted but the 70 recorded have symbolic meaning and 2) the lineage of Shem is that of the Messiah therefore more details are included.)

☐ Hymn 546 Standing on the Promises

#### Meditation • Genesis 10:6-14

Reading Plan · Genesis 10

- <sup>6</sup>The sons of Ham: Cush, Egypt, Put, and Canaan.
- <sup>7</sup> The sons of Cush: Seba, Havilah, Sabtah, Raamah, and Sabteca. The sons of Raamah: Sheba and Dedan.
- 8 Cush fathered Nimrod; he was the first on earth to be a mighty man.
- 9 He was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Therefore it is said, "Like Nimrod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 10 The beginning of his kingdom was Babel, Erech, Accad, and Calneh, in the land of Shinar.
- <sup>11</sup> From that land he went into Assyria and built Nineveh, Rehoboth-Ir, Calah, and
- 12 Resen between Nineveh and Calah; that is the great city.
- 13 Egypt fathered Ludim, Anamim, Lehabim, Naphtuhim,
- <sup>14</sup> Pathrusim, Casluhim (from whom the Philistines came), and Caphtorim.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노아의 족보 속에서, 눈에 띄는 자손들의 이름을 적어 보시고, 왜 눈에 띄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 세요.

Among the lineage of Noah, please write down the names that caught your attention and think about why those names drew your interest.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옥(CA)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안정섭(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여호와 앞에서 Before the Lord

노아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났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8:17)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살펴보니, 훗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싸우고 쫓아내야 할 족속까지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간에 싸우도록 창조하신 것일까요? 족보의 내용 중, 함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 중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9절).

사냥을 잘 하는 족속이라는 설명이라면 좋겠지만, "앞에서"라는 히브리어 단어 [파님paw-neem' 또는 파네 paw-neh']는 단순하게 "얼굴, 면전"이란 의미만이 아닙니다. [파나paw-naw'] 가 기본 어근으로, "돌리다turn, 돌아가다turn from or away"라는 의미기에 의역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또는 하나님께로 부터 돌리다"입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육신이 된 경우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모습이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생겨날 것임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을 드러낸 사람들, 사냥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뽐낸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교만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There were many descendants of Noah. The covenant of God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en. 8:17) was fulfilled. However, inspecting those names, it is recorded that the tribes that Israelites had to fight and banish from the promised land of Canaan at the end of Exodus were all descendants of Noah. Had God created them for fratricide? Among the lineage, especially part of Ham's family, one particular phrase caught my eye: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10:9).

If it explains a mighty hunter, it is one thing, but the word "before" in Hebrew is "paw-neem" or "paw-neh" and it does not simply mean "face, or countenance". Since paw-naw is the root of the word and it means "turn, or turn from or away," the contextual meaning is "turn to God or turn away from God." It resembles the case of man becoming mortal in Genesis 6. As the number of people created in God's image increased, they were departing from God, implying that this will also occur in Noah's descendants.

Those who showed bravery before God and those who showed off their abilities through hunting are just like us. I pray that today would be a day to remember who we ar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RADEI-Thu 13

2022 JANUARY

# 바벨을 세우다

**Building Babe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세상의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읍 과 탑을 건설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뜻을 아시고는 그들의 언어를 혼돈케 하셨고, 그들을 사 방으로 흩으셨습니다(셈의 족보와 그 가계에 속한 아브람과 사래도 기록되었습니다).

♬ 새10장(통34장) 전능왕 오셔서

### 묵상·**창세기 11:1-9**

통독·창세기 11장

- 1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2**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3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4도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5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6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7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8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9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 Reading Insight

The whole world had one language and a common speech. They tried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by building a city with a tower. The Lord who learned of their intention confused their language and scattered them over all the earth. (The account of Shem's family line and that of Abram is also provided.)

☐ Hymn 10 Come, Thou Almighty King

#### Meditation • Genesis 11:1-9

Reading Plan · Genesis 11

- 1 Now the whole earth had one language and the same words.
- <sup>2</sup> And as people migrated from the east, they found a plain in the land of Shinar and settled there
- <sup>3</sup>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Come, let us make bricks, and burn them thoroughly." And they had brick for stone, and bitumen for mortar.
- <sup>4</sup> Then they said,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and a tower with its top in the heavens, and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lest we be disperse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 <sup>5</sup> And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city and the tower, which the children of man had built.
- 6 And the LORD said, "Behold, they are one people, and they have all one language, and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what they will do. And nothing that they propose to do will now be impossible for them.
- **7** Come, let us go down and there confuse their language, so that they may not understand one another's speech."
- 8 So the LORD dispersed them from there over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they left off building the city.
- <sup>9</sup> Therefore its name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all the earth. And from there the LORD dispersed them over the face of all the eart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람들이 건설했던 탑의 이름은 무 엇인가요? (9절)

What is the name of the tower that people built? (11:9)

'사람들이 건설했던 탑'과 유사한 이유로 세워지고 건설된 것들은 어 떤 것들이 있을까요?

Could you think of other things that people build today that are similar to the tower that people built in the Bible story?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CA) 버클리새교회, 김종식(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Scattered Over All the Earth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요. 즉,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땅위에 가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신 말씀과도 의미가 통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탑을 쌓기 시작한 이유입니다(11:4).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 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흩어지기 싫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싫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돈케 하시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흩어지는 것이 사역이요 선교의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연합하라고 속삭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흩어짐과어떤 연합을 이루고 계신지요? 온 지면에 흩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After God created human beings, God blessed them and told them to be fruitful,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earth. God also told them to subdue the earth. And God helped them to subdue the earth by allowing them to multiply and fill the earth. The spirit of this command can also be seen in the command given to the disciples who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However, people did not want to be scattered.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ey started to build the tower (11:4). It is surprising that the primary reason for building th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ir "reluctance to be scattered" was their rejection of God's original intention in creation as well as their reluctance to obey God's will in their lives. For this reason, God confused their language and scattered them over the earth. Following God's will and being scattered to fulfill God's will is the essence of Christian ministry and mission. Unfortunately, however, the world that we live in continues to tempt us to unite together to make a name for ourselves, discouraging us from following God's will. How are you being scattered or are you seeking to be united? May you find time to consider the heart of God who scattered people over all the earth as you go through this da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섯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14**

2022 JANUARY

# 아내를 누이라 하다

Calling Wife as One's Sist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 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 새323장(통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

#### 묵상·창세기 12:10-20

통독·창세기 12장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 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 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 라 하니라

14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 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 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하고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 Reading Insight ······

God called Abram to leave Ur of the Chaldees and go to the land that will be shown to him. God promised to make Abram into a great nation.

√ Hymn 323 Call'd of God, We Honor the Call

#### Meditation • Genesis 12:10-20

Reading Plan · Genesis 12

- <sup>10</sup> Now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So Abram went down to Egypt to sojourn there, for the famine was severe in the land.
- 11 When he was about to enter Egypt, he said to Sarai his wife, "I know that you are a woman beautiful in appearance,
- 12 and when the Egyptians see you, they will say, 'This is his wife.' Then they will kill me, but they will let you live.
- 13 Say you are my sister, that it may go well with me because of you, and that my life may be spared for your sake."
- 14 When Abram entered Egypt, the Egyptians saw that the woman was very beautiful.
- <sup>15</sup> And when the princes of Pharaoh saw her, they praised her to Pharaoh. And the woman was taken into Pharaoh's house
- 16 And for her sake he dealt well with Abram; and he had sheep, oxen, male donkeys, male servants, female servants, female donkeys, and camels.
- 17 But the LORD afflicted Pharaoh and his house with great plagues because of Sarai, Abram's wife.
- 18 So Pharaoh called Abram and said, "What is this you have done to me? Why did you not tell me that she was your wife?
- 19 Why did you say, 'She is my sister,' so that I took her for my wife? Now then, here is your wife; take her, and go."
- **20** And Pharaoh gave men orders concerning him, and they sent him away with his wife and all that he ha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아브람은 아내를 누이라 하고 대가로 무엇을 받았나요? (16절) What did Abram receive after saying that his own wife is his sister? (12:16)

이번 사건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지 묵상해 보십시오.

Imagine how their relationship as husband and wife may have been affected by this incident.

#### God Moment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CA) 산타마리아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물질' VS '복' Things vs. Blessing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1절)라고 하셨고, 아브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큰 민족을 꿈꾸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여 '아내를누이라 하는 것' 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의바로왕에게 아내를 누이라 소개하고는 왕에게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이 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아브람은 아내를 되찾아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얻은 많은 재물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치욕스럽고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재물이 많아진 것으로 '복을 얻었다'고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복'이 되게 하시려는 여정에서 먼저 '물질'과 '복'의 다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의 차이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이무엇인지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Go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to the land I will show you (12:1)." God promised to make Abram into a "great nation" and bless him to be a "blessing" (12:2)." What do you think Abram thought of when he heard this promise from God? He probably thought of glory and honor that will be his when he becomes a great nation. But the first thing that he came to experience after receiving this promise from God was fearing for his life in Egypt and calling his wife as his sister in an attempt to save himself. In order to save his own neck, Abram lied to the Pharaoh of Egypt that his wife is his sister. When Pharaoh took Abram's wife as his own wife, God inflicted serious diseases on Pharaoh and his household. When the truth was discovered, Pharaoh gave back Abram's wife and Abram left Egypt.

What do you think Abram felt when he saw all the things that he had acquired from Pharaoh after lying to him about his wife? Shame? Remorse? He probably did not feel that he was blessed because of all the things that he had acquired from Pharaoh. Through this experience, God began to teach Abram that acquiring a lot of things are not necessarily a blessing and about the difference in God's blessings and the blessings of this world. As you go through this day, take some time to consider what "God's blessing" really is.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ER일·Sat

2022 JANUARY

## 롯과 헤어지다

Breaking Up with Lo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아브람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서 같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롯이 먼저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소돔에까지 이르렀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sub>묵상・</sub>창세기 13:1-9

통독·창세기 13장

- 1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 2아브띾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 <sup>3</sup>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 4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
- 5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 주하였는지라
- 8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 9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 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 Reading Insight

Abram and Lot had so much livestock to the point where they could not live together in the same area. As they parted ways, Lot went to the plain of Jordan, all the way to Sodom, and Abram lived in the land of Canaan.

☐ Hymn 436 Thou, My Everlasting Portion

#### Meditation • Genesis 13:1-9

Reading Plan · Genesis 13

- <sup>1</sup> So Abram went up from Egypt, he and his wife and all that he had, and Lot with him, into the Negeb.
- <sup>2</sup> Now Abram was very rich in livestock, in silver, and in gold.
- <sup>3</sup> And he journeyed on from the Negeb as far as Bethel to the place where his tent had been at the beginning, between Bethel and Ai,
- 4 to the place where he had made an altar at the first. And there Abram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 <sup>5</sup> And Lot, who went with Abram, also had flocks and herds and tents.
- 6 so that the land could not support both of them dwelling together; for their possessions were so great that they could not dwell together,
- <sup>7</sup> and there was strife between the herdsmen of Abram's livestock and the herdsmen of Lot's livestock. At that time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were dwelling in the land.
- 8 Then Abram said to Lot, "Let there be no strife between you and me, and between your herdsmen and my herdsmen, for we are kinsmen.
- <sup>9</sup> Is not the whole land before you? Separate yourself from me. If you take the left hand, then I will go to the right, or if you take the right hand, then I will go to the lef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아브람의 조카 롯은 어느 지역으로 떠났나요? (10-11절) Where did Abram's nephew Lot go when they parted ways? (13:10-11)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언제 축복을 하셨나요? (14절) 왜, 이 때 일까요?

When did God bless Abram (13:14)? What do you think is the significance of this timing?

#### God Momen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CA)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걱정도 늘어가다 Growing Worries

13장 1-2절의 말씀은 아브람의 늘어난 소유물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가는 '양과 암수 나귀와 낙타 그리고 노비들'을 보면서 아브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일들이 떠올랐겠지요. 더욱이 늘어난 가축들과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서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도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겉으로는 풍족한 재산들이 있지만, 속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람은 여호와를 향해서제단을 쌓습니다(4절, 18절).

아브람은 제단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함께 살았던 조카를 떠나보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카가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땅을 티끌 같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때는 또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지금 복받고 있다!" 했을까요? 오늘 하루 늘어난 재물 때문에 조카를 떠나보냈던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Chapter 13, verses 1–2 give a good description of Abram's growing possession. What do you think when through Abram's mind as he looked at his growing herds, flocks and tents? Happiness probably was not one of it because there was growing dispute among his shepherds and Lot's shepherds who had to take care of the ever-growing herds and flocks. Eventually, Abram decides to break up with his nephew Lot. Just as his possessions and wealth grew, his worries and concerns also continued to grow. But even in this kind of situation, Abram built an altar to the Lord (13:4,18).

What do you think Abram felt as he stood by the altar? What do you think he felt as he parted ways with Lot who had been with him ever since he left his home? After Lot left, God blessed Abram saying, "I will make your offspring like the dust of the earth." What do you think Abram felt when he heard these words from God? Do you think he celebrated saying to himself, "I am being blessed now"? Take some time today to consider what "God's blessing" is for you as you consider the story of Abram.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16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_/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_/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취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모양입니다. 올해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 〈하인된 나〉, 그리고 〈종된 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데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느낌은 참 좋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중요한 키워드(keyword)는 〈성취〉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전과 성취의 꿈을 키운다고 말은 했어도 그때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살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속의 주어는 〈하나님〉이 시기보다는 〈나〉인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는 어떤 마음으로 맞으려고 하십니까? 목표는 세우셨습니까?

어떤 분이 목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며 얼마나 성장 하느냐이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sup>вае</sup> моп

## 롯을 구하다

Rescuing Lo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사해 지역에 5개의 나라들과 엘람 왕(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모인 나라들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롯이 엘람 왕의 포로가 되고, 아브람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 새49장(통72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 묵상·**창세기 14:17-24**

통독·창세기 14장

17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 와 그를 영접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 을 멬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 품은 네가 가지라

22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 지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 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 Reading Insight .....

Five countries in the Dead Sea region and the kings who allied with king of Elam (Kedorlaomer) went to war. In this war, Lot was taken as prisoner by king of Elam. Abram goes to rescue Lot.

Hymn 49 There'll be Showers of Blessing

#### Meditation • Genesis 14:17-24

Reading Plan · Genesis 14

- 17 After his return from the defeat of Chedorlaomer and the kings who were with him, the king of Sodom went out to meet him at the Valley of Shaveh (that is, the King's Valley).
- 18 And Melchizedek king of Salem brought out bread and wine. (He was priest of God Most High.)
- 19 And he blessed him and said, "Blessed be Abram by God Most High,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 **20** and blessed be God Most High, who has delivered your enemies into your hand!"And Abram gave him a tenth of everything.
- 21 And the king of Sodom said to Abram, "Give me the persons, but take the goods for yourself."
- <sup>22</sup> But Abram said to the king of Sodom, "I have lifted my hand to the LORD, God Most High,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 23 that I would not take a thread or a sandal strap or anything that is yours, lest you should say, 'I have made Abram rich.'
- 24 I will take nothing but what the young men have eaten, and the share of the men who went with me. Let Aner, Eshcol, and Mamre take their shar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아브람은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 다고 말했을까요? (23절) Why did Abram refuse to accept nothing for himself? (14:23)

24절, 일부의 것을 분깃으로 남긴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묵상해 보십 시오.

Think about why Abram allowed some of his men to keep their share in v. 24.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CA)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I Will Accept Nothing

조카 롯과 가족들이 엘람 왕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이 아브람에게 전해 졌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훈련된 318명과 함께 엘람 왕을 쫓아서 물리 치고는 롯과 그의 가족 및 재물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람의 소식을 들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엘람 왕을 쫓으며 아브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축들(재물) 지키려다 롯을 소돔으로 떠나보내고… 이것이 무엇인가? 무익한 행동이었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람은 전쟁 후 얻은 것의 십 분의 일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십일조의 기원이라 하는데, 곧 소돔 왕이 자신에게는 백성들만 돌려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브람은 자신의 것 이 아니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하며 거의 모든 것을 되돌려줍니다.

전리품의 10분의 9도 취하지 않는 아브람은 마음속으로 가족들에게 일어난 어려움의 발단(가축이 늘어나고, 이로써 헤어지게 된 것)이 '재물'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도 품었을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아브람과 아브람을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Abram received the news that his nephew Lot and his family have been taken as prisoners by king of Elam. Abram took 318 trained men and went after king of Elam and rescued Lot and his family and took back their belongings. After hearing about this, Melchizedek king of Salem blessed Abram saying, "Blessed be Abram by God Most High." What do you think went through Abram's mind as he was going after king of Elam in an effort to rescue Lot? Do you think he regretted breaking up with Lot in order to protect his herds and flocks, blaming himself for what had happened to Lot and his family?

To Melchizedek who praised God, Abram gave a tenth of everything he acquired from the battle. Some say that this is the origin of the practice of tithing. Then when the king of Sodom asks Abram to give back his people and gives permission to Abram to keep the goods, Abram returns everything to the king of Sodom saying that he will not keep anything that does not belong to him.

It may be possible that Abram thought that the whole trouble of Lot and his family began with dispute over trying to protect one's "possessions (heard and flocks)" and that Abram may have reconsidered increasing his possessions. As you go through this day, I pray that you will take a moment to consider the changes in Abram's attitude toward possession. I pray that you will also experience the hand of God that guided Abram.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sup>ই কি প্র</sup>ইণ বিষ্ণু কি প্রিক্তি কি প্রক্রিক বিষ্ণু কি ক্রিক বি

2022 JANUARY

## 아브람이 언약을 받다

The Lord's Covenant Promise to Abra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2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자녀를 줄 것이며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 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불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 묵상·창세기 15:9-17

통독·창세기 15장

9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 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 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 으며

11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 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 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 Reading Insight .....

Abram asked what blessings God had granted. (15:2) God made a promise of "a smoking firepot and a flaming torch," saying that he would give Abram his own children and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300 Just When I am Disheartened

#### Meditation • Genesis 15:9-17

Reading Plan · Genesis 15

- <sup>9</sup> He said to him, "Bring me a heifer three years old, a female goat three years old, a ram three years old, a turtledove, and a young pigeon."
- 10 And he brought him all these, cut them in half, and laid each half over against the other. But he did not cut the birds in half.
- 11 And when birds of prey came down on the carcasses, Abram drove them away.
- <sup>12</sup> As the sun was going down, a deep sleep fell on Abram. And behold, dreadful and great darkness fell upon him.
- 13 Then the LORD said to Abram, "Know for certain that your offspring will be sojourners in a land that is not theirs and will be servants there, and they will be afflicted for four hundred years.
- 14 But I will bring judgment on the nation that they serve, and afterward they shall come out with great possessions.
- 15 As for yourself, you shall go to your fathers in peace; you shall be buried in a good old age.
- 16 And they shall come back here in the fourth generation, for the iniquity of the Amorites is not yet complete."
- 17 When the sun had gone down and it was dark, behold, a smoking fire pot and a flaming torch passed between these piece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나요? (6절) What does the Bible illustrate about those who believe the Word of God? (15:6)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갈대아 우 르에서 이끌어 내신 이유는 무엇인 가요? (7절)

Why did God bring Abram out of Ur of the Chaldeans? (15:7)

#### God Momen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어바인드림교회, 원홍연(CA) 언약교회, 이상호(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복인가? 저주인가? Is it a blessing? Is it a curse?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과 그 상속자를 통해서 아브람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약속을 어기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로 '불의 서약'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13-14절에 추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종으로 400년을 살아야 하며, 훗날 재물을 얻는다는 것까지. 이방인의 종으로 400년을 살아야 한다는 언약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브람의 삶과후손들의 삶의 여정이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살던 곳을 떠나는 것', '큰 재물을 얻어 나오는 것', '재물의 개념이 바뀔 상황'까지 유사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의지하던 곳'을 떠나며 시작되고 세상이 정해 놓은 '축복과 물질'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진정 깨닫게 되는 것임을 창세기 15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별처럼 많아진 사람들에게 '복'을 쉽게 대물림 받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람의 때처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다듬으실 것입니다.

God promised that heirs would come from Abram, and that through his heirs, Abram would bring forth as many descendants as the stars in the sky. God even performed a ceremony of "a smoking firepot and a flaming torch," meaning that breaking the promise would result in death. But God added one condition in 15:13–14: descendants will have to live 400 years as slaves to the Gentiles, and afterward they will become lavish in the future. Is the covenant that they must live 400 years as Gentile's slaves a "blessing" or a "curse"? I don't think you can easily answer "blessing". Interestingly, the life of Abram and the life journey of his descendants seemed very similar. Their journey of life is similar in terms of "leaving their place of residence," "getting out of the house with great wealth," and "a situation in which the concept of wealth will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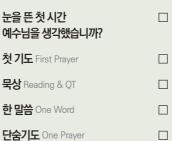
Genesis 15 testifies that God's blessings begin when Abram left his "place of establishment" and when he could truly deviate from the concept of "blessings and material things" set by the world. God did not allow the "blessing" to be easily passed on to the descendants who had increased like the number of stars for 400 years. As in the days of Abram, the God who molded them through their journey in the wilderness, is the same God who will also mold us toda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19

2022 JANHARY

## 하갈이 언약을 받다

Hagar receives God's covenan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사래가 자신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자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보내 어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한 하갈은 사래를 멸시했 고, 사래는 아브람의 허락을 받아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 다. 이에, 하갈은 도망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언 약을 받았습니다.

♬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묵상·창세기 16:7-14

통독·창세기 16장

7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 를 만나

8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9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 가서 그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 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14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 Reading Insight .....

When Sarai had no children, she sent Hagar, a maidservant, to Abram to have children. However, when Hagar was pregnant, she despised Sarai. With Abram's permission, Sarai mistreated Hagar. As a result, Hagar ran away, met an angel of the Lord, and received God's covenant.

F Hymn 310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 Meditation • Genesis 16:7-14

Reading Plan · Genesis 16

- **7**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er by a spring of water in the wilderness, the spring on the way to Shur.
- <sup>8</sup> And he said, "Hagar, servant of Sarai,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She said, "I am fleeing from my mistress Sarai."
- <sup>9</sup>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Return to your mistress and submit to her."
- <sup>10</sup> The angel of the LORD also said to her, "I will surely multiply your offspring so that they cannot be numbered for multitude."
- <sup>11</sup> And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er, "Behold, you are pregnant and shall bear a son. You shall call his name Ishmael, because the LORD has listened to your affliction.
- 12 He shall be a wild donkey of a man, his hand against everyone and everyone's hand against him, and he shall dwell over against all his kinsmen."
- 13 So she called the name of the LORD who spoke to her, "You are a God of seeing," for she said, "Truly here I have seen him who looks after me."
- 14 Therefore the well was called Beer-lahai-roi; it lies between Kadesh and Bere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래가 하갈을 학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5-6절) Why was Sarai able to mistreat Hagar? (16:5-6)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인 가요? (14절)

What is the word meaning "well of the Living One who sees me?" (16:14)

#### God Momen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열린교회, 김규현(CA)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순종함으로 얻은 기회(?)

Obedience creates new opportunity (?)

사래의 여종 하갈은 주인에게서 도망을 치는 가운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말하며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스마엘)을 주고, 그를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도알려주었습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간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을 믿으며 살아갈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성장하면 하갈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때를 기다렸겠지요.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입 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라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끄시는 복의 길을 함께 따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스마엘이 '복'의 길로 걷도록 도왔어야 했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상처와 억울함에 붙들려서 '언약'의 일부를 소망으로 삼고는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하루가 되길기도합니다.

As Sarai's maidservant Hagar ran away from her master, she met an angel of the Lord in the wilderness. The angel of the Lord told Hagar to return to her mistress and submit to her and gives her the name of the child to be born (Ishmael). The angel also informed her that through him she would have many offspring and that her child would be hostile "against all his brothers."

When Hagar returned to her mistress, she believed in the words of the angel in hope. She must have waited for the right time, believing that Ishmael would make up for the injustice against Hagar when he grew up. Hagar believed in God's covenant.

Unfortunately, she missed one thing. She neglected God's Word, "he will live in hostility toward all his brothers." If she believed in God's covenant, she had to follow the path of blessing that God led Abram through. As his mother, she should have helped Ishmael walk on the path of "blessing." However, holding on to her personal wounds and resentment, even though she turned a part of the "covenant" into her hope, she did not seek the opportunity of "God's guidance to fulfill the covenant." Eventually, Hagar's descendants become a nation that opposes Israel. I pray that you will have a day to seek and follow God's guidance in fulfilling the covenant.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er 🔲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早요일·Thu **20**

2022 JANIJARY

##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다

Named Abraham and Sara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 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시로 남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삭)도 알려주셨습니다.

♬ 새436장(통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묵상·창세기 17:15-22

통독·창세기 17장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 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 님 앞에 살기를 워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 과 세우리라

22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 가셨더라

#### Reading Insight ·····

God changed the names of "Abram" and "Sarai" to "Abraham" and "Sarah'". The new names meant "father of many nations" and "mother of many nations." As a sign of the covenant, God ordered men to be circumcised and also gave the name of the child to be born to Abraham (Isaac).

☐ Hymn 436 Lately the Life of Christ

#### Meditation • Genesis 17:15-22

Reading Plan · Genesis 17

- 15 And God said to Abraham, "As for Sarai your wife, you shall not call her name Sarai, but Sarah shall be her name.
- 16 I will bless her, and moreover, I will give you a son by her. I will bless her, and she shall become nations; kings of peoples shall come from her."
- 17 Then Abraham fell on his face and laughed and said to himself, "Shall a child be born to a man who is a hundred years old? Shall Sarah, who is ninety years old, bear a child?"
- <sup>18</sup> And Abraham said to God, "Oh that Ishmael might live before you!"
- 19 God said, "No, but Sarah your wife shall bear you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Isaac.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as an everlasting covenant for his offspring after him.
- **20** As for Ishmael, I have heard you; behold, I have blessed him and will make him fruitful and multiply him greatly. He shall father twelve princes, and I will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 <sup>21</sup>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Isaac, whom Sarah shall bear to you at this time next year."
- 22 When he had finished talking with him, God went up from Abraham.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인가요? (1절)

What were the first words God announced to Abraham when he was 99 years old? (17:1)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 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What was God's intention when He spoke to Abraham?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예수사랑교회, 이강원(CA)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언약 앞에서 드러난 믿음 Faith exposed by the covenant

하나님께서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람이 앞드려 웃었습니다(17절).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25년이란 시간이 너무나 길었던 것인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18절). 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마엘이나…"라는 말의 의미는 "저와 사래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의미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리시며, 그 아이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19, 21절).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떠올립니다. 인간의 것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잊고 믿음은 위협을 받는 것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람의 경험 안으로 끌어들여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이룰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언약을 믿을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After God specifically unveiled the covenant, Abram fell on his face and laughed (17:17). Abraham was called "righteous" because he believed God's covenant. Perhaps 25 years was too long, leading Abraham to reply to God, "If only Ishmael might live under your blessing!" (17:18). Although it was just for a moment, Abraham revealed human weakness before God's covenant. It implied that "It is impossible for me and Sarai to have children." Then God revealed the name of the child to be born, and He said twice that He would make a covenant with the child (17:19, 21).

People sometimes think of human experience and knowledge when they encounter the Word of God. By holding on to human nature, he forgets the covenant and his faith is threatened, and even the Word of God is drawn into human's experience to be interpreted. The important thing before God is not "who will fulfill the covenant," but "who will believe the covenant?" I pray that you will spend a day believing only in the Word of God, not in human experience and knowledg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21

2022 JANUARY

##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임을 언약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 새569장(통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묵상·창세기 18:16-21

통독·창세기 18장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 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 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 이니라

**20**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 Reading Insight

Jehovah appeared to Abraham. Jehovah had promised Sarah that she would have a son and informed Abraham that He would judge Sodom and Gomorrah.

₼ Hymn 569 Saviour, Like a Shepherd Lead Us

#### Meditation • Genesis 18:16-21

Reading Plan · Genesis 18

<sup>16</sup> Then the men set out from there, and they looked down toward Sodom. And Abraham went with them to set them on their way.

17 The LORD said, "Shall I hide from Abraham what I am about to do.

18 seeing that Abraham shall surely become a great and mighty nation,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in him?

19 For I have chosen him, that he may command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righteousness and justice, so that the LORD may bring to Abraham what he has promised him."

**20** Then the LORD said, "Because the outcry against Sodom and Gomorrah is great and their sin is very grave,

<sup>21</sup> I will go down to see whether they have done altogether according to the outcry that has come to me. And if not, I will know."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여호와의 임재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지했나요? (2절)

When Jehovah God appeared to Abraham, how did Abraham recognize the presence of Jehovah? (18:2)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32절) 라는 질문에 담긴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Meditate on whether Abraham's heart is exposed in his question "What if only ten can be found there?" (18:32)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CA) 우드랜드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황승일(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아브라함이 달라지다 Abraham is different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사라의 마음속으로 품었던 마음도 드러났지요(12-13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살피시러 가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20-21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조카 롯을 떠올렸을 것이며, 롯이 엘람 왕에게 붙들려 갔을 때도 쫓아갔던 것처럼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 래서 하나님의 말씀 뒤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하며 여러 번 되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지금껏 인간의 경험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창세기를 18장까지 묵상하시는 동안 모두가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며, 오늘도 아브라함과 함께 삶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The presence and judgment of Jehovah God exposes everything. Sarah's heart was revealed (18:12–13). When God told Abraham that He would go directly to examine the sins of Sodom and Gomorrah (18:20–21), Abraham must have sensed God's judgment. Abraham must have recalled his nephew Lot, who lived in the regions of Sodom and Gomorrah. Abraham might have worried about Lot like when Lot was taken captive by the king of Elam. That is why, after God's Word, he asked many times, "Do you destroy the righteous along with the wicked?"

However, he knew precisely that there was nothing man could do on his own before God's judgment. This is because from the moment he left Ur of the Chaldeans, he was trained to lay down human experiences and values. The change in Abraham's life was gradually revealed through this incident. He acknowledged human weakness and at the same time revealed himself as a believer and follower of God's Word. As you meditate on Genesis through chapter 18, I invite you to transform your faith and pray that you will reap a change in your life like Abraham as well.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er 🔲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ER일·Sat

2022 JANHARY

##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다

Sodom and Gomorrah destroy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여호와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천사를 향해서도 악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리고 도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망 중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 새499장(통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묵상·창세기 19:23-29

통독·창세기 19장

23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 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 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 Reading Insight

Two angels of the Lord came to Sodom and Gomorrah. The people there also tried to do evil against angels. The angels informed Lot of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and helped him escape. However, while fleeing, Lot's wife turned to look back and became a pillar of salt.

A Hymn 499 Far, Far Away in Heathen Darkness Dwelling

Meditation • Genesis 19:23-29

Reading Plan · Genesis 19

- 23 The sun had risen on the earth when Lot came to Zoar.
- 24 Then the LORD rained on Sodom and Gomorrah sulfur and fire from the LORD out of heaven.
- <sup>25</sup> And he overthrew those cities, and all the valley,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cities, and what grew on the ground.
- **26** But Lot's wife, behind him, looked back, and she became a pillar of salt.
- 27 And Abraham went early in the morning to the place where he had stood before the LORD.
- 28 And he looked down toward Sodom and Gomorrah and toward all the land of the valley, and he looked and, behold, the smoke of the land went up like the smoke of a furnace.
- <sup>29</sup> So it was that, when God destroyed the cities of the valley, God remembered Abraham and sent Lot out of the midst of the overthrow when he overthrew the cities in which Lot had live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입은 사 람들은 누구인가요? (14-15절) Who were saved in Sodom and Gomorrah? (19:14-15)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었던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나요? (29절)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 십시오.

Why were they saved in the midst of judgment? (19:29) Meditate on why.

#### God Moment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월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CA) 유바 사랑의 교회, 강혜성(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뒤를 돌아보다 Looked Back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될 때, 롯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심판받게 될 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지요. 그래서 인근의 작은 성읍 '소알'로 도망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에 도착했을 무렵부터 여호와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32절)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집안의 물건'을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던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며,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화 받을 기회를 얻었지만, 지난 삶에 대한 미련을 가졌기에 결국 죄악된 도시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변화 받을 기회를 주시지만, 변화를 얻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삶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When Sodom and Gomorrah were to be judged, Lot was very worried. He was afraid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leave the city where people would be judged. Thus, he begged the angel to let him flee to the nearby small town of Zoar. As soon as Lot and his family arrived in Zoar, Jehovah's judgments began to fall on Sodom and Gomorrah. At this time, Lot's wife turned back and she became a pillar of salt. Jesus said in Luke 17:32, "Remember the wife of Lot." At the end, Jesus told us not to go home because we are obsessed with household items.

Jesus said that if you try to save your life, you will lose it. In other words, Lot's wife remained attached to the life she lived in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ah, and she is seen as a symbol of a person who did not seize changes in life. She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be transformed prior to God's judgment, but because she longed for her past life, she was ultimately judged with her sinful city. God gives everyone the opportunity to be transformed, but we must not forget that there are always only a few who achieve change. I hope that today is the day you will let go of your obsession with your past lif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23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인생의 세가지 질문

배헌석목사(앤아버소망교회)

창세기는 기원(Genesis/Origin)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50장 1,533절로 되어 있고, 흠정역(KJV) 성경으로 계산하면 38,267단 어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는 질문이 148개, 명령이 106개, 약속 이 71개, 예언이 56개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148개의 질문 가운데 인간의 삶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전 12:13). 이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나는 과연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둘째 질문은,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 4:9)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마음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 결과 동생,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심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행한 질문은 '과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과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셋째 질문은,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창 16:8)입니다.

이 질문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생명의 출발점은 어디고,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은 어떤 곳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해서도 안되고, 잘 못된 답을 알아서도 안되며, 답 알기를 미루어서도 안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하면 '그저 이 세상에 존재'(being) 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력으로 살아(living)'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습니까?



# <sup>ваев</sup>·моп 24

2022 JANHARY

# 또 아내를 누이라 하다

Again, called his wife his sist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 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시어 경고하셨고, 아브라함의 기 도를 통하여 아비멜렉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거두어졌습니다.

♬ 새382(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묵상·창세기 20:10-18

통독·창세기 20장

10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 하였음이요

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 이니라

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 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 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 Reading Insight

Abraham deceived Abimelech, king of Gerar, by calling Sarah as his sister. God appeared in Abimelech's dream to warn him, and through Abraham's prayer, the disaster inflicted on Abimelech was removed.

√ Hymn 382 Be not Dismayed Whate'er Betide

# Meditation • Genesis 20:10-18

Reading Plan · Genesis 20

- <sup>10</sup> And Abimelech said to Abraham, "What did you see, that you did this thing?"
- <sup>11</sup> Abraham said, "I did it because I thought, There is no fear of God at all in this place, and they will kill me because of my wife.
- 12 Besides, she is indeed my sister, the daughter of my father though not the daughter of my mother, and she became my wife.
- 13 And when God caused me to wander from my father's house, I said to her, 'This is the kindness you must do me: at every place to which we come, say of me, He is my brother.'"
- 14 Then Abimelech took sheep and oxen, and male servants and female servants, and gave them to Abraham, and returned Sarah his wife to him.
- 15 And Abimelech said, "Behold, my land is before you; dwell where it pleases you."
- 16 To Sarah he said, "Behold, I have given your brother a thousand pieces of silver. It is a sign of your innocence in the eyes of all who are with you, and before everyone you are vindicated."
- 17 Then Abraham prayed to God, and God healed Abimelech, and also healed his wife and female slaves so that they bore children.
- 18 For the LORD had closed all the wombs of the house of Abimelech because of Sarah, Abraham's wif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 인가요? (11절) What was Abroham afraid of?

What was Abraham afraid of? (20:11)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내리셨 던 재앙은 무엇인가요? (17절) What was the plague that God brought upon Abimelech? (20:17)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CA)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한 걸음 더 다가오신 하나님 God is one step closer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재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소개하는 사건이지요. 남편으로써 수치스러 운 일을 왜 다시 행할까 의구심이 들지만, 11-13절의 말씀을 보면 의구 심이 풀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친히 언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 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스 스로의 연약함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기도 뒤에 아비멜렉에게 주어졌던 어려움이 해결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 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먼저 한걸음 찾아오심을 체험하였습 니다. 오늘도 한 걸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시길 기 도합니다.

The incident of Genesis 12 was repeated. Abraham introduced his wife Sarah as his sister to Abimelech, king of Gerar. I wonder why he would do something disgraceful again, but verses 11-13 clear up my doubts. Abraham, afraid of those who did not fear God, made a covenant with his wife to live for him. In other words, he did not fully grasp that God is the Creator and Sovereign of the world. Through Abimelech, God allowed Abraham to confront his own weakness again. Then God had Abraham pray.

It is not recorded for what Abraham prayed for, but God allows us to see that the difficulties that Abimelech had faced were resolved after Abraham's prayer. Abraham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reflect deeply on himself and God's will through prayer. It seems that he moved one step closer to God, but in fact he experienced that God always approached him first. Today, I pray that you will meet and rely on God who approaches one step closer to you.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022 JANHARY

# 이삭이 태어나다

Isaac is bor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의 언약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언약하신 대로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 되며

# 묵상·창세기 21:8-13

통독·창세기 21장

-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 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 9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 <sup>11</sup>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 이 되었더니
- 12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 Reading Insight

As stated in God's covenant, a son Isaac was born to Abraham and Sarah. Once Isaac was born, Hagar and Ishmael had to leave Abraham's house, but God opened up a way for Ishmael to live conforming to God's promise.

300 Just When I am Disheartened

# Meditation • Genesis 21:8-13

Reading Plan · Genesis 21

- <sup>8</sup> And the child grew and was weaned. And Abraham made a great feast on the day that Isaac was weaned.
- <sup>9</sup> But Sarah saw the son of Hagar the Egyptian, whom she had borne to Abraham, laughing.
- 10 So she said to Abraham, "Cast out this slave woman with her son, for the son of this slave woman shall not be heir with my son Isaac."
- 11 And the thing was very displeasing to Abraham on account of his son.
- 12 But God said to Abraham, "Be not displeased because of the boy and because of your slave woman. Whatever Sarah says to you, do as she tells you, for through Isaac shall your offspring be named.
- 13 And I will make a nation of the son of the slave woman also, because he is your offspring."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2절) What happened to Sarah? (21:1-2)

하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요? (19-20절) What happened to Hagar? (21:19-20)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CA)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God's promise must be fulfilled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은 인간의 관습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근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고 하셨고,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하갈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매정해 보입니다. 14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 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하시겠다'는 말씀도 믿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죽음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 했던 자신을 지켜 주셨던 하나님 께서 이스마엘도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었을 겁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행동이 아닐까요? (참고, 창 3:21)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듯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겁니다. 허락된 언약을 찾으시며 이루어질 언약을 믿고 사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To Abraham, Isaac was the son promised by God, and Ishmael was the son born according to human customs. Thus, he was troubled when there was conflict between Isaac and Ishmael. God told Abraham to do what Sarah said, and he sent Ishmael and Hagar away. But it looked too easy. Verse 14 states, "Abraham prepared food and a container of water, and strapped them on Hagar's shoulders. Then he sent her away with their son ....". Abraham saw the birth of Isaac and witnessed the fulfillment of God's covenant. He observed the impossible happen. Because of that, he must have believed God's words, "I will make Ishmael into a nation."

He must have truly believed that the God who protected him, who called his wife as his sister, would also protect and lead Ishmael. Isn't "a leather bag of bread and water" a heartfelt act? (Also see Gen 3:21). God meets and guides everyone individually. Just as he fulfilled the Abrahamic covenant, God will also fulfill the covenant he made to us. Spend a day to study the promised covenant and live by believing in the covenant that will be fulfille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ক্রণ্র Wed 26

2022 JANOANI

#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다

Abraham Test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증 받았습니다.

♬ 새216장(통356장) 성자의 귀한 몸

# 묵상·창세기 22:9-14

통독·창세기 22장

9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 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 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 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 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 리라 하더라

## Reading Insight .....

God tested Abraham by asking him to sacrifice his son Isaac as a burnt offering. When Abraham was about to offer his son Isaac as a burnt offering, God stopped him. This event proved that Abraham feared God and live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fter offering burnt offerings with the lamb God had prepared, God's covenant was confirmed again.

☐ Hymn 216 Savior! Thy Dying Love

# Meditation • Genesis 22:9-14

Reading Plan · Genesis 22

- 9 When they came 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 Abraham built the altar there and laid the wood in order and bound Isaac his son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 10 Then Abraham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ughter his son.
- <sup>11</sup>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to him from heaven and said, "Abraham, Abraham!" And he said, "Here am I."
- 12 He said, "Do not lay your hand on the boy or do anything to him,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seeing you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from me."
- 13 And Abraham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behind him was a ram, caught in a thicket by his horns. And Abraham went and took the ram and offered it up as a burnt offering instead of his son.
- 14 So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s it is said to this day, "O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provide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번제로 드릴 양을 하나님께서 준 비하실 것이라"(8절)는 말에 이삭 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What did Isaac think when he said, "God will provide a lamb for a burnt offering?" (22:8)

이 사건으로 이삭은 무엇을 배웠을 까요? (12절) What did Isaac learn from this incident? (22:12)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주사랑연합감리교회, 김태호(CA)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하나님께서 믿어 주십니다 God Believes in Abraham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시험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놀랍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늦게 얻은 유일한 아들을 차분하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혹자는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 두셨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것이라"라고.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히 11:19)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얻기 전 그의 믿음은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던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웃음을 짓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셨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믿으셨다는 증거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끈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도 믿으시며, 축복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The story of Abraham offering his son Isaac as a burnt offering is a remarkable event. First, the test to offer Isaac, the Son of Promise, as a burnt offering was very harsh and surprising to him. Second, Abraham's attitude was amazing. It is startling that he calmly tried to burn the only son he obtained late in his age. Some said, "Abraham must have known that God had a sheep." Or, it might be Abraham's faith that "God would raise Isaac from the dead." (Heb 11:19). Meditate on this.

Before he received the name "Abraham," his faith carried the dishonesty that introduced his wife as his sister and transmitted the disbelief that made him laugh when God's covenant was unveiled. Then he became a man who feared God and believed in the sovereignty of God. How did this change come about? God prepared a sheep, which is proof that God first believed that Abraham's faith would have grown. It is clear that this kind of God's trust in Abraham eventually led him to become a man of faith. The God who believed in Abraham also believes that our faith will grow, and He will prepare blessings for us.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Ragi·Thu

2022 JANHARY

# 사라가 장사되다

The Burial of Sara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

사라가 백이십칠 세로 삶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 새606장(통291장) 해 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묵상·창세기 23:12-18

통독·창세기 23장

12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 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 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 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 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성 문에 들어온 모든 혯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 Reading Insight

Sarah's life ended at the age of one hundred and twenty-seven. Abraham bought the Hittite cave of Machpelah and buried Sarah there.

☐ Hymn 606 There's a Land that is Fairer Than Day

# Meditation • Genesis 23:12-18

Reading Plan · Genesis 23

12 Then Abraham bowed down before the people of the land.

13 And he said to Ephron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of the land, "But if you will, hear me: I give the price of the field. Accept it from me, that I may bury my dead there."

14 Ephron answered Abraham

15 "My lord, listen to me: a piece of land worth four hundred shekels of silver, what is that between you and me? Bury your dead."

16 Abraham listened to Ephron, and Abraham weighed out for Ephron the silver that he had named in the hearing of the Hittites, four hundred shekels of silver, according to the weights current among the merchants.

17 So the field of Ephron in Machpelah, which was to the east of Mamre, the field with the cave that was in it and all the trees that were in the field, throughout its whole area, was made over

18 to Abraham as a possession in the presence of the Hittites, before all who went in at the gate of his city.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살면서 특혜를 받아보셨다면, 어떤 이유로? 정당했나요?

If you have received special privileges in your life, what was the reason? Was it fair?

막벨라 굴을 값을 내고 산 이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참고, 눅 14장, 롬 13장, 딤전 6장)

Meditate on the reason why he paid for the cave of Machpelah. (Also see Luke 14; Rom 13; 1 Tim 6)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CA)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허리를 굽히다 Abraham bowed down

사라가 수명을 다하여 장사를 지낼 장소를 찾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굴의 주인이었던 헷족속의 에브론이 그 굴을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주려하자, 지역에서 신임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허리를 굽혀가며 합당한 가격으로 그 굴을 삽니다. 때로 사람들은 거저 얻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축복과 재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고 소돔 왕에게 모든 전리품을 되돌려주는 아브라함으로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거저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허리를 두 번이나 굽힘으로써 하나님의 언약만을 가슴에 품고 절제되고 정제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웃의 호의도 정중히 사양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시며 절제되고 정제된 하루를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While looking for a place to bury Sarah, Abraham found the cave of Machpelah. When Ephron the Hittite, the owner of the cave, offered to give it to Abraham for free, Abraham, who was trusted and respected in the region, bent down twice to purchase the cave at a reasonable price. Sometimes people will rejoice because they think that free things are the grace of God. However, after leaving Ur of the Chaldeans, there is a change in his perspective of "blessings and wealth." Abraham had changed into a new Abraham who saved Lot and returned all the spoils to the king of Sodom.

To him, since all people in the world are God's creations and live by God's providence, there was no reason for anyone to receive things for free. In today's words, Abraham bowed down twice, embracing God's covenant in his heart and living a disciplined and refined life. May you live a day of moderation and cultivation as you meditate on the life of Abraham, who did not take for granted the opportunity presented to him and respectfully declined the favor of his neighbor.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8**

2022 JANHARY

#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The Lord had blessed him in every wa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여인을 찾을 것과 여인이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해도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 새542장(통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 묵상·창세기 24:1-9

통독·창세기 24장

1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 사에 복을 주셨더라

2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 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3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 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 내를 택하라

5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 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 Reading Insight ....

Abraham ordered the old servant who was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 to visit Abraham's native land in order to get a wife for Isaac. He ordered a woman to be found in Abraham's hometown and not to take Isaac there, even if she would not come to Canaan.

Hymn 542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 Meditation • Genesis 24:1-9

Reading Plan · Genesis 24

- <sup>1</sup> Now Abraham was old, well advanced in years. And the LORD had blessed Abraham in all things.
- <sup>2</sup> And Abraham said to his servant, the oldest of his household, who had charge of all that he had, "Put your hand under my thigh,
- <sup>3</sup> that I may make you swear by the LORD, the God of heaven and God of the earth, that you will not take a wife for my son from the daughters of the Canaanites, among whom I dwell.
- 4 but will go to my country and to my kindred, and take a wife for my son Isaac."
- 5 The servant said to him, "Perhaps the woman may not be willing to follow me to this land. Must I then take your son back to the land from which you came?"
- <sup>6</sup> Abraham said to him, "See to it that you do not take my son back there.
- <sup>7</sup> The LORD, the God of heaven, who took me from my father's house and from the land of my kindred, and who spoke to me and swore to me, 'To your offspring I will give this land,'he will send his angel before you, and you shall take a wife for my son from there.
- <sup>8</sup> But if the woman is not willing to follow you, then you will be free from this oath of mine; only you must not take my son back there."
- <sup>9</sup> So the servant put his hand under the thigh of Abraham his master and swore to him concerning this matter.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 하고 있습니까? (3절) How did Abraham describe God? (24:3)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7절의 말을 한 것일까요? (창17:21, 21:12) What did Abraham base his statement in 24:7 on? (Gen 17:21, 21:12)

### God Momen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CA)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언약을 따르는 믿음

Faith to keep and follow the covenant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는 사건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1절). 어떤 의미를 담겨 있나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알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려는데, 종이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5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지라"(7절).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러난 고백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약속 의 땅에서 사는 것, 이방인과 문화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언약임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 이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종을 보낸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근심과 주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근 심과 주저함으로부터 자유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story of Abraham sending his servant to Haran to find a wife of his son Isaac before his death. "Abraham was now a very old man, and the Lord had blessed him in every way" (24:1). What does it mean? Does it mean, "He is very old, but the Lord has always made known to him the covenant of God?" He sent his servant to Haran to find Isaac's wife, but his servant asked: "What if the woman is unwilling to come back with me to this land? Shall I then take your son back to the country you came from?" (24:5).

Abraham asserts, "He will send his angel ahead of you." (24:7). It is a confession of Abraham's faith. He believed that it was God's will and covenant to stay in the Promised Land and not to mix with Gentiles and local cultures. Therefore, he sent his servant with the belief that "it will be done according to God's covenant." Believing in God's covenant is expressed as a life of faith without worries and hesitation. I pray that you will have a day free from worry and hesitation by believing in God's covenant.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ER일·Sat 29

2022 JANHARY

# 에서가 장자권을 팔다

Esau Sells His Birthrigh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

아브라함이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쌍둥이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떡과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묵상·창세기 25:27-34

통독·창세기 25장

27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 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 Reading Insight

Abraham was buried in the cave of Machpelah, where Sarah was buried. Isaac's wife, Rebekah, could not bear a child, so she pleaded with the Lord, and then her twins Esau and Jacob were born. Esau sold his birthright to Jacob for bread and lentil stew.

Hymn 436 Thou, My Everlasting Portion

# Meditation • Genesis 25:27-34

Reading Plan · Genesis 25

- <sup>27</sup> When the boys grew up, Esau was a skillful hunter, a man of the field, while Jacob was a quiet man, dwelling in tents.
- 28 Isaac loved Esau because he ate of his game, but Rebekah loved Jacob.
- **29** Once when Jacob was cooking stew, Esau came in from the field, and he was exhausted.
- **30** And Esau said to Jacob, "Let me eat some of that red stew, for I am exhausted!" (Therefore his name was called Edom.)
- 31 Jacob said, "Sell me your birthright now."
- 32 Esau said, "I am about to die; of what use is a birthright to me?"
- 33 Jacob said, "Swear to me now." So he swore to him and sold his birthright to Jacob.
- **34** Then Jacob gave Esau bread and lentil stew, and he ate and drank and rose and went his way. Thus Esau despised his birthrigh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는 무 엇인가요? (28절) Why did Isaac love Esau? (25:28)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 는 무엇인가요? (롬 9:13, 11:26) Why did God love Jacob? (Rom 9:13, 11:26)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CA)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선피터(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축복 기도를 원한 야곱

Jacob Wants a Prayer of Blessing

에서가 팥죽과 떡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장자권이 팔려지는 성질의 것인가요? 에서가 장자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요. 에서도 알고 있었기에, 배고픔에 장자권을 팔겠다고 말하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그 언약으로 자녀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 장자권의 중요한 의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권과 분명 다르지요. 태초의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홍수 뒤에 노아도 같은 '언약'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같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권한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 이며 이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해지는 믿음의 유산 같은 것이지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가졌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보다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간절히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즉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사모하는 이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시어 복받으시길 기도합니다.

Is the birthright being traded just because Esau sold the birthright for red bean porridge and bread? It is an irreplaceable fact that Esau is the firstborn. Esau knew this too, so he said he would sell his birthright due to hunger, and he regarded the birthright lightly. If we look at the incident of Isaac's blessing on Jacob in Genesis 27, we can see that the important implication of the birthright is that believers in God's covenant pray for blessings on their children.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property rights in the world. Humans in the beginning of creation received God's "covenant," and after the flood, Noah received the same "covenant."

Therefore, the entitlement of the firstborn in the sight of God is "a life that follows God's covenant," which is like a legacy of faith passed down from parents to children. We do not know exactly who was interested in God's covenant, whether it was Jacob or Esau, but it is clear that Jacob desperately wanted his father's blessing rather than his father's wealth. What matters most is the heart that longs for blessings. God blesses those who long for the covenant. I pray that everyone will be blessed by longing for God's covenant toda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30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하늘 공원을 세웁시다

김낙인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상암동 올림픽 구장 옆 하늘 공원을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굽이굽이 잘 정리된 길을 따라 힘들게 정상에 오르니 갈대와 코스모스가 함께 넓은 공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었습니다. 그 넓은 갈대와 코스모스 밭의 길목마다여러 부류의 동아리들과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점심을 꺼내 먹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며 행복해하였습니다. 행복의 동산, 자유의 동산, 하늘 동산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한강줄기를 내려다보며 조국의 변모한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이 하늘 공원 자리는 원래 쓰레기 처리장이었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울 인근의 쓰레기들을 모아다 버렸기에 쓰레기 산이 되었고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살던 가난한 이들이 움막을 짓고 살았던 곳입니다. 움막에서 밥을 해 먹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메탄가스가 터져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신문에서 종종 읽곤 하였습니다.

거기에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신학생들이 예수님처럼 험한 곳으로 내려가서 가 난한 동네의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하고 교회를 일군 이야기들을 무슨 임꺽정 이야 기처럼 재미있게 듣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곳이 이렇게 아름답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공원이 된 것입니다. 쓰레기 위에 큰 가스 공장을 세워 그곳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모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풀과 꽃과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850 미터 높이의 하늘동산의 꼭대기를 바라보며 오르다 보면 그야말로 청국을 향해 오르

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까이하지 않았던 곳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행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숨과 눈물의 쓰레기 더미가 기쁨과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버림받은 쓰레기 더미가 자원이 되고 행복의 공간이 되다니... 너무나 계시적인 변화였습니다.

세계사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4세기 때 흑사병이 창궐하여 유럽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천5백만 명이 희생을 당했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혼돈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에 충격과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마틴 루터와 같은 분은 재 난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 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라고 믿음과 지혜로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조심하고 정갈하게 생활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로 인해 전염병후에 교회는 오히려 크게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과 지혜이며 꿈이되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의 어둠과 절망을 빛과 희망으로 바꾸고 이 땅에 하늘 공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이 땅에 하늘 공원을 세워가는 매일이 되기를 기워드립니다.

# <sub>ваен</sub> моп

2022 JANUARY

#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Live in the land where I tell you to liv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흥년 때문에 이삭이 그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물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말합니다.

♬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이루소서

# 묵상·창세기 26:26-33

통독·창세기 26장

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 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 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 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 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 이니라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30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 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 이 오늘까지 브엨세바더라

# Reading Insight

Because of the famine, Isaac went to Gerar, but God told him to stay there and not go anywhere else. Like his father Abraham, Isaac calls his wife Rebekah his sister.

☐ Hymn 425 Have Thine own way, Lord

# Meditation • Genesis 26:26-33

Reading Plan · Genesis 26

- **26** When Abimelech went to him from Gerar with Ahuzzath his adviser and Phicol the commander of his army,
- 27 Isaac said to them, "Why have you come to me, seeing that you hate me and have sent me away from you?"
- 28 They said, "We see plainly that the LORD has been with you. So we said, let there be a sworn pact between us, between you and us, and let us make a covenant with you,
- 29 that you will do us no harm, just as we have not touched you and have done to you nothing but good and have sent you away in peace. You are now the blessed of the LORD."
- 30 So he made them a feast, and they ate and drank.
- <sup>31</sup> In the morning they rose early and exchanged oaths. And Isaac sent them on their way, and they departed from him in peace.
- 32 That same day Isaac's servants came and told him about the well that they had dug and said to him, "We have found water."
- 33 He called it Shibah; therefore the name of the city is Beersheba to this day.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이삭은 리브가를 왜 누이라 소개했 을까요? (7절)

Why did Isaac introduce Rebekah as his sister? (26:7)

각자의 부모님으로 부터 전해받은 '복'은 무엇이 있나요? (자녀들에게 전해줄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What kind of "blessings" have you received from your parents? What kind of "blessing" will you pass on to your children?

### God Moment

#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희망교회, 김정민(CA)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일(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너도 복을 받으리라 You will be blessed too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누이로 소개하는 이삭은 아버지 아 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삭의 출생 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로 소개했던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그랄의 왕)이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는다고 했는데, 수치스러운 사건도 닮으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얼굴도 화끈거립니다. 그런데, 이것만 닮은 것이 아니지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간청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27-28절), 여호와께서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인케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흥년에 먹고살고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아들 이삭도 받게 하시려던 것이었지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도 받도록 예비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기도드립니다.

Isaac, who introduces Rebekah as his sister to Abimelech, king of the Philistines, acts like his father Abraham. Before Isaac's birth, the name of the king whom Abraham introduced Sarah to was Abimelech (King of Gerar). Father and son were very much alike, even their shameful conduct was similar, so we who meditate on the Word are also embarrassed. However, this is not the only similarity. Abimelech, king of the Philistines, came to Isaac and begged him, "We can plainly see that the Lord is with you... Now you are blessed by the LORD" (26:27–28). Through this it is clear the Lord confirmed to Abimelech that Abraham and Isaac were blessed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and that they lived by the covenant of God.

This was the reason why God forbade them to go to Egypt in order to survive during the famine. It was to make sure that his son Isaac would also receive the covenant his father Abraham had received. This was a circumstance in which God, who fulfilled the covenant, was preparing Abraham's "blessing" so that Isaac would also receive it. I pray that you will wait in faith for God who is preparing to bless us in all our circumstances today.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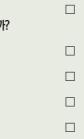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 2022년 1월 기쁨의 언덕으로

# 소그룹 교재

####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십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이 이르시되" I 창세기1:1-5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l 창세기 2:1-15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l 창세기 9:8-17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l 창세기 16:1-6

●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I 창세기 20:8-18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창세기 1:1-5

### "하나님이 이르시되"



새200장(통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새204장(통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새199장(통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 01 여는 질문

비기독교인 친구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냐? 그럼 네 믿음을 증명해 봐라!" 한다면, 어떻게 대응(증명)하시겠습니까?

#### 02 본문이해

점기던 교회에 고등부 학생이 대학교 입학 후, 다양한 인종과 그들의 종교를 접하고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살던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는데, 대학교에서 무슬림, 불교 등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을 보고는 놀란 것이었지요. 친구들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믿음'이란 '주어진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이 친구들은 다른 종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이해가되고 나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 힘들어졌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다른 종교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례한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에 목회자를 찾아와 '다른 종교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본질/ 핵심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 또는 핵심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확증 및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설명엔 반드시 정확하게 짚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 사임을 확증하는 것이지요. 만약,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건 과 부활의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대학생에게 '하 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나'고 되물었습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요. 종교가 달라지는 원인처럼 보이는 '가정, 환경, 문화'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반응(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무관심으로)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자주 하나님의 천지창조 보다 사회적 관점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이로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도록 유도하여 삶의 기준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 03 말씀속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창조하셨나요? (26-27절)

#### 04 삶속으로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혹 이 러한 명령을 제대로 이해한 경우, 또는 잘 못 이해한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 05 암송구절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06 자녀와 나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알게 된 것을 나누어 주세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본문 창세기 2:1-15

###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새430장(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442장(통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 01 여는 질문

'일요일Sunday' 또는 '주일Lord's day' 중, 어떤 단어를 즐겨사용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02 본문이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2절),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3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며(blessed), 거룩하게(made it holy)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그저 손을 놓고 쉬지 않으셨음이 명시되었지요.

창세기에서 사용된 단어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 barak]입니다. 이 단어는 "무릎 꿇다(to kneel), 송축하다(to salute), 축복하다(to bles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송축하고, 축복을 하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이 단어를 의역하여 안식일에 적용해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멈추시고는 일곱째 날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날'로 만드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거룩함이란 '구별됨', 즉 세상에서 구별된 것 –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른 날들과는 구별된 날로 만드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들 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날로 만드셨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언급하셨습니다. 진정 안식일에도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증거하신 것이지요.

운동과 노동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같은 에너지를 사용했어도 노동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운동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과 생기를 소생시키시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한 안식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기에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날을 쉬는 날로만 여긴 다면, 앞으로의 한 주간은 더욱 고되고 힘겨운 날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하시고 안식일에 제대로 안식하시며 새힘을 얻어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내는 한주가 되십시오.

#### 03 말씀속으로

사람은 에덴동산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을까요? (15절)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04 삶속으로

주일(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안식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스스로의 안식일에 대해서 평가해 보세요.)

#### 05 암송구절 창세기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 06 자녀와나눔

대게 사람들은 주말(금/토/주일)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은 왜 주일에 교회에 갈까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창세기 9:8-17** 

###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375장(통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새384장(통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01 여는 질문

스스로에게 또는 남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약속' 또는 '결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도 나누어 주세요.

#### 02 본문이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하셨고, 사람으로 하여 금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루어질 명령이었지요. 하지만,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창 6:2)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며 '육신됨'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육신된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하셨지요.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써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40일 밤과 낮으로 내린 비로써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남겨졌습니다. 심판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로기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맡기셨고, 이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말씀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새롭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11절)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구름속에 두심으로써 언약의 증거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뒤 태양의 반대쪽에서 보여지는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많은 물방울들에 의해서 빛의 굴절과 반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것이 무지개를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면,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여 육신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비가 오다가 멈춰지고 보여지는 '무지개', 또는 비가 오면서 동시에 해가 뜬 경우에 보여지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개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말라는 '경고'이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증거입니다.

무지개를 향해서 이러한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담긴 언약을 외면하는 행위가 됩니다. 내리는 비 앞에서, 비온 뒤 무지개 앞에서, 심지어 비로 인한 자연재해를 앞에 두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 – 언약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 03 말씀속으로

'무지개'에 담겨 있는 언약의 기한은 언제 까지이며(12절), 기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 04 삼속으로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무지개' 언약과 상충되는 듯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05 암송구절 창세기 9: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06 자녀와나눔

친구들과 부모님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창세기 16:1-6** 

##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새604장(통288장) 완전한 사랑 새605장(통287장) 오늘 모여 찬송함은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01 여는 질문

누군가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경우를 나누어 보세요. (왜 조언을 따르지 않았나요?)

#### 02 본문이해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신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람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따르며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잊은 것인지는 몰라도, 사래는 아브람에게 여종을 통해 자손을 얻으라 권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아내의 권함을 받아들였고(2절). 이 일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4절).

아브람은 여호와의 언약을 잊은 것일까요? 아브람과 사래의 행동은 그 당시의 문화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전적으로 '문화'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 특히 예술, 도덕, 종교, 제도 따위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사람의 바람과 소망을 현실화시킨 행동들 모두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도 주인의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문화를 사래와 아브람이 받아들였고, 이 문화를 하나님의 언약과 맞바꿔 놓았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적으로 문화화시킨 것이지요. 이 일로, 하갈이 임신을 하고는 사래를 멸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래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5절)라고 말했고, 아브람은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좋을 때로 그에게 행하라"(6절)라고 대꾸합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선악과'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

려 놓은 남자와 여자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과 흡사하지요. 성경 말씀 속,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사람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 스스로의 방법을 찾고 자기 합리화를 시작할 때 어려움은 생겨났지요. 그리고 이로써 고통도 본인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고 이를 지켜내는 일이 바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찾고 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03 말씀속으로

여종으로 자손을 얻고자 한 사래의 말에 아브람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2절)

#### 04 삶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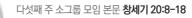
원하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 05 암송구절 창세기 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 06 자녀와나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나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새374장(통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새382장(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 01 여는 질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꼈던 경우를 나누어 주세요.

#### 02 본문이해

창세기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자손의 숫자를 별 만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땅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찌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매우 당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그로 범죄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죽음의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하시며 복의 근원으로써의 자격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꿈을 꾸고는 스스로 죄를 짓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알게 하셨고, 동시에 아비멜렉에게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써의 자격을 이어가자, 아비멜렉도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나누어지고 전하여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앞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바로 왕도 유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조금 달 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로 왕도 만나게 하셨는데 바로왕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 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복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자녀를 낳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를 모두에게 얻게 하신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름의 과정에서 언약을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된 도구로써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받았음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03 말씀속으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어떤 언약을 나누었나요? (11-13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04 삶속으로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이로써 얻게 된 결과는 어떠했는지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 05 암송구절 창세기 20: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 06 자녀와나눔

어려움을 피하고자 해서 무슨 거짓말을 한적이 있나요? 그로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 "God said"

#### Opening Discussion

If a non-Christian friend asks you, "Are you a Christian? Then prove your faith!" how would you respond (prove)?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 high school student from the church I served went to a university. He was surprised to learn about different races and their religions. Most of the people in the village where he lived were Christians, but he was surprised to meet friends of other religions, such as Muslims and Buddhists, at the university. As he talked about religion with his friends and got to know their culture, he came to think that "faith" is greatly influenced by one's "given environment."

He came to understand that just as he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his friends were born into other religions. He was grateful to be born in a Christian family, but at the same time, he confessed that it was difficult for him to tell his friends to believe in God. Moreover, he thought that it might be rude to share the gospel of Christianity to someone who was born and raised in a culture of another religion, so he came to the pastor and confessed his honest feelings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preach the gospel to friends of other religions.

Answer the question yourself. "What is the essence/core of Christianity?" In general, you would answer that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is the essence or core of Christianity. This is because God's salvation to restore sinful human beings to the image they were created to be was confirmed and completed through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However, there is a point that must be clearly made in such an explanation.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 1:1). Explaining the essence of Christianity begins with the fact that God created the world.

God's creation of the world with God's Word confirms that the event of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God's work of redemption. If the world was not created with the Word of God, the meaning of the event of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cannot but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I asked the college student who said he would not be able to preach the gospel, "Do you believe that God created the world?"

If you believe in the sovereignty of God the Creator, you are told to preach the gospel boldly. I advised him not to forget that we can preach the gospel according to God's Word, believing that "family, environment, and culture," which seem to differentiate different religions, are all within God's creation. God's creations cannot but respond to God's Word (sometimes with tears, sometimes with anger, sometimes with indifference). Christianity is based on the belief that God created the world. However, modern times often lead us to focus more on the social perspective than on God's creation.

This leads people to turn away from the "Word of God," which created the world through the Word, and causes them to lose their foundation of life. The Bible, the Word of God, begins with the words with Genesis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 03 Into the Word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od created man differently from other creatures. What did God create differently? (1:26–27)

#### 04 Into our life

Genesis 1:28 commands,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What is the meaning of this command of God? What are some cases in which these commands are properly understood or misunderstood?

#### 05 Memory Verse Genesis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id you realize while reading Genesis 1? Please share what you learned.



###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 Opening Discussion

Which word do you prefer, "Sunday" or "Lord's Day?" Why?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fter God created the universe,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 Bible describes His rest as "He ceased all his works" (2:2) and "He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2:3). It doesn't mean that God stopped creating the universe and did nothing. Rather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It was made clear that God did not simply let go of his hand and rested.

The word "bless" used in Genesis is [baw-rak'] in Hebrew. This word means "to kneel, to salute, to bless." So blessing means "kneeling before God, giving thanks, and praise."

If we paraphrase this word and apply it to the Sabbath,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creating the world, and made the seventh day as the day to, "Kneel before God," "Praise God," and "Bless the world with God's blessings." In other words, God worked hard even on the Sabbath. Furthermore, holiness means to be "separated", that is, to be set apart from the world. God made the Sabbath to be holy as a day set apart from other days.

Mark 2:27 says, "And he said,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and not man for the Sabbath, so that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Jesus correctly stated that God made the Sabbath a special day set aside for people. It was truly a testimony of God's love for caring for people even on the Sabbath.

You've probably heard it said that exercise and work are different. Even if the same physical energy is used, labor makes people tired, and exercise breathes life into people. By making the Sabbath day blessed and holy, God intended to revive the souls and vitality of those of faith. It was designed so that man could rule the world according to God's will during the week after complete rest on Sabbath.

Since this is the providence of creation and the first written word in God's Word, it is also the mission of believers to spend the Sabbath day blessed and holy. However, if you consider this day only as a day off, the next week will be even more difficult and tiring. Meditate through Genesis 2 again, rest properly on the Sabbath, and be refreshed and grow in your faith.

#### 03 Into the Word

How did man spend the day in the Garden of Eden? (2:15) What does this mean?

#### 04 Into our life

How do you spend your Sunday (Sabbath)? What are your expectations for the Sabbath? (Evaluate your own Sabbath.)

#### 05 Memory Verse Genesis 2:3

"So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because on it God rested from all his work that he had done in creation."

####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Most people wait for the weekend (Friday/Saturday/Sunday). Why? (Why do Christians go to church on Sunday?)



# Evidence of the Eternal Covenant

#### Opening Discussion

Please tell us about the "promise" or "decision" you have kept to yourself for a long time or in you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share the reason.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universe was created with the Word of God. God blessed man and told him to rule the world. Therefore, the Word of God was a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in itself. However, the first people, Adam and Eve, Cain, and those who are called "sons of God" (Genesis 6:2) did not listen to God's Word. They did not keep the Word of God in their hearts. They followed what they wanted and walked the path of the flesh. So God judged the fleshly people with water. This is Noah's flood incident and was initiated because people ignored the "Word of God."

The world was judged by the rain that fell for 40 days and nights, and only Noah and his family were saved by the grace of God. After the judgment, God blessed Noah and his family again. He entrusted Noah and his family with the animals of the earth,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waters of the sea, which God gave to Noah to be consumed. Then again, He said,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Noah and his family. Moreover, He promised, "There shall be no more flood to destroy the earth" (9:11) and He will put a "rainbow" in the clouds to serve as the sign of the covenant.

A rainbow is a spectrum of light seen from the opposite side of the sun after it rains. It is seen through the refraction and reflection of light by many water droplets. If this is a scientific and analytical explanation of the rainbow, then the biblical meaning is this. It tells people to remember the time when they turned away from God's Word and followed their own flesh and when they look at the rainbow to remember that the world was judged by water.

A "rainbow" which appears when the rain stops and the sun appears encourages us to never forget God's covenant. In other words, the rainbow is a "warning" to not let God's Word out of our hearts because the world was created with God's Word. It is a symbol of "God's grace" that we will never be judged with water again.

The act of giving a meaning other than this to the rainbow is an act of ignoring God's Word and the covenant contained in it. Facing the falling rain, the rainbow after the rain, and even natural disasters caused by rain, we must not forget that God created the world with the Word and is sustaining it with the Word–Covenant.

#### 03 Into the Word

What is the deadline for the covenant contained in the "rainbow" (9:12), and what is the meaning of the deadline?

#### 04 Into our life

Some people lose their lives in disasters like floods which seems to be at odds with the "rainbow" covenant. How can they be reconciled?

#### 05 Memory Verse Genesis 9:11

"I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that never again shall all flesh be cut off by the waters of the flood, and never again shall there be a flood to destroy the earth."

####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If you have made a promise to your friends and parents, what is the meaning of that promise?



# "Maybe I will have children through her."

#### 01 Opening Discussion

Share a time when you experienced difficulties because you followed your own ideas instead of following someone else's advice. Why didn't you follow the advice?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t has been ten years since the Lord brought Abram out of Ur of the Chaldeans. During this time, Abram believed and followed Jehovah's covenant and was called "righteous". It may be that Abram forgot that he made a covenant with Jehovah God. Abram accepted his wife Sarai's invitation (16:2) and this caused Hagar to become pregnant when Sarai encouraged Abram to obtain descendants through a maidservant (16:4).

Did Abram forget the covenant with God? Abram and Sarai's actions may have been due to the culture of the time. "Culture" in the dictionary means "the process or achievement of human activities to realize the ideal of human beings, especially the product of inner and mental activities of human beings such as art, morality, religion, and institutions." In summary, it can refer to all actions that have made a person's wishes and hopes come true.

God had promised Abram that He would give him offspring, but Sarai and Abram accepted the culture of those who thought that "to obtain a child through a servant girl is also a child of the master," and they exchanged this culture with God's covenant. Abram degraded God's covenant into a worldly culture. This caused Hagar to become pregnant and despise Sarai. Sarai said, "May the Lord judge" (16:5), and Abram replies, "Your maidservant is in your hand, do with her whatever you think best" (16:6). Neither is accepting responsibility. This event reminds us of the "fruit of the tree of good and evil" incident in Genesis 3. It is similar to the way men and women who ignore the Word of God shift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Bible, most cases human suffering does not originate from God. Difficulties arise when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God's will or ignore God's Word, look at the situation,

find their own way, and start to rationalize their decisions. They then have to bear the pain themselves.

Today's Word testifies to us that seeking God's covenant and keeping it is the best way to avoid difficulties. We must remember that finding, seeking, and obtaining the covenant God has given u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human life.

#### 03 Into the Word

How did Abram respond to Sarai's request to have children through a maidservant? (16:2)

#### 04 Into our life

Think about the first thing you do to get the results you want. What were the results?

#### 05 Memory Verse Genesis 16:2

"And Sarai said to Abram, "Behold now, the LORD has prevented me from bearing children. Go in to my servant; it may be that I shall obtain children by her." And Abram listened to the voice of Sarai.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you encounter a difficult problem, whom do you turn to first? What comes to mind first?



# "There is no fear of God in this place"

#### 01 Opening Discussion

Please share a time when you felt so afraid and lonely to the point of giving everything up.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bram believed the Lord, and the Lord coun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Gen 15:6). When God said that He would make him see the stars in the night sky and make the number of his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Abraham believed the word of the Lord, and God counted his faith as righteous. However, when he arrived in the land of those who did not know God, the Gentiles who did not fear God, Abraham thought that he would be killed. In a way, Abraham's fear was a very natural fear. However, God revealed His presence once again in this situation.

God's covenant was to make Abraham a "source of blessing," so that "all nations would be blessed" through Abraham. The core theme of Genesis is that the person who receives the covenant of God becomes the source of blessing and that all people can receive blessings through this person. That is why he allowed Abraham, who received God's covenant, to face the situation of death again and confirmed his qualifications as a source of blessing. Also, God made Abimelech discover on his own through a dream that he was in a sinful situation. At the same time God gave Abimelech an opportunity to escape from his sin and receive God's blessing.

As Abraham continued his qualifications as a source of blessing, Abimelech also received the blessing of having children through his wife and maidservants. This event initiated the thread that God's covenant and blessings are shared and communicated to Gentiles as well.

Pharaoh, mentioned earlier in Genesis 12, was in a similar situation. However, the results were slightly different. God allowed Abraham to meet Pharaoh as well, but ended the

situation when Pharaoh did not sin. However, God allowed Abimelech to respond to God's blessing, understand God's Word, and have children. In other words, he gave everyon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This is an event clearly manifesting that God wants to bless everyone in the world. God calls everyone. And He wants to use those who have received the covenant as God's blessed as instruments in the course of this calling. We will have to live today knowing that we have been given this role.

#### 03 Into the Word

What covenant did Abraham make with his wife Sarah? (20:11-13) Why?

#### 04 Into our life

Think of a time when you broke your promise to God because of a very urgent situation. Please share what the results were.

#### 05 Memory Verse Genesis 20:7

"Now then, return the man's wife, for he is a prophet, so that he will pray for you, and you shall live. But if you do not return her, know that you shall surely die, you and all who are yours."

####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ve you ever lied to avoid difficulties? What was the result?

####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15162Z
Country: Tanzania

Serving At: Susannah Wesley Education and Healthcare Center

Home Country : **DRCongo, Africa** Spouse : **Umba Ilunga Kalangwa** 

Kalangwa, Ngoy Mulanga

Mrs. Ngoy Mulanga Kalangwa is a United Methodist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erving in women's ministry of education and health in Morogoro, Tanzania. She is coordinator of Methodist schools and director of the Susannah Wesley Education and Healthcare Center.

The Methodist presence in Tanzania is relatively new and exists in large part because of mission outreach from the North Katanga Conferenc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Ngoy brings special skills in music and singing and a warm personality to her ministry that focuses on improving the skills of women, youth, and children. "All I learned in being a pastor's wife and serving congregations and communities, as well as nurturing our family, equipped me well in helping others--in sewing, cooking, caring for babies, childcare, family relations, and managing pregnancies as a

midwife." She has assisted women during childbirth both in refugee camps and other places.

Women at the center are taught sewing and other skills to improve their standard of living, in combination with Christian education, and health and nutrition instruction. Education about HIV/AIDS is also included. Nutritional standards have been improved by the gift of a grinding mill for grain from the Women's Division.

Born in Mwanza Village, DRC, Ngoy is the second of eight children. While studying at the teacher's college in DRC, she met her future husband, Rev. Umba Kalangwa, also a missionary, an ordained elde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the North Katanga Annual Conference, DRC.

Ngoy and Rev. Kalangwa were married in 1980 after her graduation from college, and they are the parents of four daughters: Umba Ngoy Doris, born in 1981; Ilunga Ngoy Nadine, 1983; Banza Wa Umba Lorene, 1986; and Ngoy Nkumwimba Karin, 1991; and two sons: Umba Ilunga, born in 1989; and Umba Manara, 1999.

Mrs. Kalangwa serves in tandem with her husband in a wide range of ministries in the Morogoro area. The Kalangwa family has been in Tanzania since 1992, when then Bishop Ngoy Kimba wa Kadilo assigned Rev. Kalangwa to an evangelistic ministry.

Contact Info: umbakalangwa@hotmail.com

사귐의 기도 **/3**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심목 속의 사귐



한국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귀중한 유산 중하나가 침묵기도이다.

우리는 흔히 '달변의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이 단어를이어가거나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능력있는 기도'라고 평가한다. 그 결과, 개신교인들은 침묵하는 습관을 거의 잃어버렸다.

하지만 수많은 영성가의 말처럼, 침묵은 인간성이 출발하는 근거이며 하나님의 현존 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침 묵을 거부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참 된 인간성을 실현할 수 없다. 침묵은 현대인 들이 회복해야 할 보물창고이다.

기도를 '요청'이 아니라 '사귐'으로 이해 하면,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사소통을 도와주지만 그 정도를 지나면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영성의 대가들이 침묵과 고독을 중요한 미덕으로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영성생활을 통해 말없는 교제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교제가 훨씬 더 깊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점차 세속적인 야망과 부산한 활동을 정리하고 주 안에서 자신의 참된 자리를 찾아 겸손하게 그 몫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리될 때 침묵하게 되며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수 있다. 말을 멈추는 것은 시작

에 불과하다. 입을 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오감을 모두 닫아야한다. 육신의 모든 감각 기능을 침묵시키고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그 온기를 즐겨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침묵은 단순히 기도를 위한 준비가 아니다. 침묵은 기도를 준비시켜 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온전한 기도이기도 하다. 말 기도와 침묵 기도를 번갈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으로만 기도 시간을 전부 채울 수 있다.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머물러 있는 것이 침묵 기도의 정수다. 높은 차원의 기도자들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영적 조명을 받는다는 뜻이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동안 문득 어떤 생각이 오롯이 떠오른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것을 '관상(contemplation)'이라고 부른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뜻이다. 침묵 기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때로 이러한 영적 조명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경험이 좀 더 자주 반복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목표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침묵 기도의 비밀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6-27)

바울에 의하면,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은 서로를 깊이 알게 한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과 기도자가 하나가 된다. 그 상태에서는 굳이 우리 사정을 고백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침묵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열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침묵할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나'의 침묵은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간구를 돕는다.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보기도를 외면하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그분 앞에 잠잠히 있을 때 진정한 사귐과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개신교인들은 침묵 기도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행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낀다. 침묵 기도가 익숙해지려면 먼저, 시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들라.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다른 생각은 자취를 감춘다. 침묵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려는 노력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이어서 '집중의 침묵'에서 '열린 침묵'으로 나아가야 한다. 침묵 기도의 진수는 기도자가 노력하여 집중하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 열린 관계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 이 단계에서 기도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열고 교제를 즐긴다. 이것은 열심히 헤엄쳐 물 한가운데로 나간 후, 몸짓을 멈추고 물의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즐기는 것과 같다.

깊은 영성에 이르러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위엄과 진리, 사랑을 깨달으면할 말을 잃어버리는 침묵에 이른다. 하나님의 현존을 처음 경험하면 자신의 죄성 때문에 말이 막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분의 위엄 때문에 말이 막힌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자각에 이르게 한다. 나의 모든 열망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고 나의 모든 희망이 이미 그분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자신의 존재와 미래가 충만하게 실현되었음을 확인한다. 즉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자신의 모든 말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 사귐의 기도는 우리를 이 단계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처음엔 말을 멈추는 침묵을 시작하지만 마침내 말이 막혀 버리는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사라져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한다.

침묵 기도가 주는 열매는 매우 값지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함으로 믿음을 강화시킨다. 침묵 기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태산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침묵 기도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준다. 침묵 기도를 지속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신체적으로도 쉼을얻는다. 따라서 침묵 기도는 영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유익이 많다.

####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 돈이냐? 생명이냐?

강선영 장로\_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GA

저는 2020년을 부푼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15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러 한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퇴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내면서 새해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푼 마음은 물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사바나 지역에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 생각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곧 끝나겠지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갈수록 심각해져 갔으며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처음 몇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지만, 얼마가 못되어서 마음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무척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생각났습니다. 온라인의 편한 예배 생활로 인하여 교회 출석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과 그분들이 혹시 소외감을 갖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함께 교우들에게 안부를 묻는 손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직장으로 향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2 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식당을 제외하고는 그로서리, 우체국 등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던 곳들을 예전과 다름없이 다니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방역에 힘쓰고 조심하면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집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심방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5년 전 남편을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홀로 자영업(옷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안 계시기에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바쁜 시즌에는 하루 12-14시간씩 일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엄지손가락의 심한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동안 일을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분들로 구성된 30 개월짜리 계모임을 했습니다. 계모임에 함께 하는 분들이 안정되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30개월의 긴 시간이지만 6개월만 있으면 끝나기에 계돈 탈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방문과 노후 대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계모임이 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저에게 소식을 전한 분과 다시 통화를 하면서 책임자이신 분이 너무 미안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셨다고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돈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위로해주라고 했습니다.

밤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50,000이라는 돈을 한꺼 번에 잃어버린 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미련함과 부끄러운 마음이 저를 짓눌러서 아팠습니다. 다음날 다른 날과 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을 시작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문제가 생긴 후에 하나님께 여쭈 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돈이냐? 생명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생명이지요"라는 대답과 함께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에 제가 다른 분께 "돈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말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순간 나의 부끄러운 마음과 모습을 회개하며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을 그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힘들 때 신앙으로 이겨 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계모임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시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다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분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돈을 받으러 온 줄 알고 걱정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안심 시키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한국에서 온지 40년 동안 이곳에서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끔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분이 40년을 이곳에 사시는 동안 그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보화 같은 생명을 저에게 맡기시며 그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집을 방문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직도 땅에 묻힌 보화처럼 이곳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를 시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는지… 저는 잃어버린 \$50,000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요즘 잃어버렸던 눈물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돈보다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아직은 열매가 없어도 씨뿌리는 작업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일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묵상하면서도 전도 받고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이일 후로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에 없었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못 가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사업도 많이 약해졌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법을 알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교우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교우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저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 엄마

노영매 권사\_남가주주님의교회, CA

손주가밥을 안 먹으니 딸이 애를 태운다. 달래도보고 혼내도보고 기다려도보고 믿어도본다. 흔들리는딸, 흔들리지 않으려 애를 쓰는 딸을 보니 엄마가 생각난다.

나도
저리키우셨을텐데.
육십이란세월저편으로,
어린애를품고
죽을만큼
흔들리지않으려고
애쓰는 한젊은 엄마가보인다.

# 기쁨의언덕으로 EOSay C





#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66 만나실수 있습니다. 99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백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남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 Hawaii (하와이 주)

알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울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하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울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만, 217-417-2288)

####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트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데넬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개통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부경원) 러벽연합감리교회(감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백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상톤사검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이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 성경진도표

2022/01			2022/02			2022/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창세기	1	01	창세기	27	01	출애굽기	1-2
02		주일	02		28	02	Ash Wed.	3
03		2	03		29	03		4
04		3	04		30	04		5
05		4	05		31	05		6
06		5	06		주일	06		주일
07		6	07		32	07		7-8
08		7	08		33	08		9-10
09		주일	09		34	09		11-12
10		8	10		35	10		13
11		9	11		36	11		14
12		10	12		37	12		15
13		11	13		주일	13		주일
14		12	14		38	14		16
15		13	15		39	15		17-18
16		주일	16		40	16		19-20
17		14	17		41	17		21-22
18		15	18		42	18		23-24
19		16	19		43	19		25
20		17	20		주일	20		주일
21		18	21		44	21		26
22		19	22		45	22		27
23		주일	23		46	23		28
24		20	24		47	24		29
25		21	25		48	25	•	30-31
26		22	26		49	26		32
27		23	27		주일	27		주일
28		24	28		50	28		33-34
29		25				29		35-36
30		주일				30		37-38
31		26				31		39-40

2022/04			2022/05			2022/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마가복음	1	01	시편I-II	주일	01	레위기	1
02		2-3	02		1-2	02		2
03		주일	03		3-5	03		3
04		4-5	04		6-7	04		4
05		6	05		8-9	05		주일
06		7	06		10-12	06		5
07		8	07		13-16	07		6
08		9	08		주일	08		7
09		10	09		17-18	09		8
10	고난주일	주일	10		19-21	10		9
11		11	11		22-24	11		10
12		12	12		25-27	12		주일
13		13	13		28-30	13		11
14		14	14		31-33	14		12-13
15		15:1-41	15		주일	15		14
16		15:42-27	16		34-35	16		15
17	부활주일	주일	17		36-37	17		16-17
18		16	18		38-39	18		18
19	고린도전서	1	19		40-41	19		주일
20		2-3	20		42-44	20		19
21		4	21		45-48	21		20
22		5-6	22		주일	22		21
23		7	23		49-50	23		22
24		주일	24		51-53	24		23
25		8-9	25		54-56	25		24
26		10-11	26		57-60	26		주일
27		12	27		61-64	27		25
28		13-14	28		65-67	28		26
29		15	29		주일	29		27
30		16	30		68-69	30		4
			31		70-72			

2022/07			2022/08			2022/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시편III-V	73-75	01	민수기	1-2	01	로마서	1
02		76-77	02		3-4	02		2
03		주일	03		5-6	03		3
04		78	04		7	04		주일
05		79-81	05		8-9	05		4
06		82-83	06		10	06		5
07		84-87	07		주일	07		6
08		88-89	08		11-12	08		7
09		90-91	09		13-14	09		8
10		주일	10		15	10		9
11		92-97	11		16	11		주일
12		98-102	12		17-18	12		10
13		103-104	13		19	13		11
14		105	14		주일	14		12
15		106	15		20	15		13
16		107-108	16		21	16		14
17		주일	17		22	17		15
18		109-112	18		23-24	18		주일
19		113-118	19		25	19		16
20		119:1-56	20		26	20	고린도후서	1-2
21		119:57-112	21		주일	21		3
22		119:113-176	22		27	22		4:1-5:10
23		120-125	23		28	23		5:11-7:1
24		주일	24		29	24		7:2-16
25		126-132	25		30	25		주일
26		133-137	26		31	26		8-9
27		138-140	27		32	27		10
28		141-143	28		주일	28		11
29		141-143	29		33	29		12
30		144-146	30		34-35	30		13
31		147-150	31		36			

2022/10			2022/11			2022/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신명기	1	01	여호수아	1	01	마태복음	3-4
02		주일	02		2	02		5
03		2	03		3	03		6
04		3	04		4	04		주일
05		4	05		5	05		7
06		5-6	06		주일	06		8
07		7-8	07		6	07		9
08		9	08		7	08		10
09		주일	09		8	09		11
10		10-11	10		9	10		12
11		12	11		10	11		주일
12		13-14	12		11	12		13
13		15	13		주일	13		14
14		16-17	14		12	14		15
15		18	15		13	15		16
16		주일	16		14	16		17
17		19-20	17		15	17		18
18		21	18		16-17	18		주일
19		22	19		18	19		19
20		23	20		주일	20		20
21		24-25	21		19	21		21
22		26	22		20	22		22
23		주일	23		21	23		1
24		27	24		22	24		2
25		28	25		23	25	성탄절	주일
26		29	26		24	26		23
27		30	27		주일	27		24
28		31	28	요엘	1	28		25
29		32	29		2	29		26
30		주일	30		3	30		27
31		33-34				31		28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 기획위원 김진우, 박호현, 방승호, 배연택, 배혁, 조기현, 조선형

이보영, 유혁재,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히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배연택 목사 (찰스톤 한인감리교회, SC)

❖ 주일 칼럼

조숙희 권사 (애틀랜타한인교회, GA)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CA) 류재덕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CA) 배헌석 목사 (앤아버소망교회, MI) 김낙인 목사 (남가주주님의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